

# SPORTS1

2022 04 | VOL.70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MONTHLY MAGAZINE



# CONTENTS



브레이킹, 올림픽에 데뷔하다

## 2024 파리올림픽

스포츠계도 MZ세대를 사로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그 일환으로 2년 후  
개최하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는  
새로운 종목 '브레이킹'을 볼 수 있다.  
브레이킹 국가대표 '비걸' 김예리 선수가  
향저우아시안게임과 파리올림픽에서의  
화려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SPORTS1**

2022 04 | VOL.70

발행인 이기흥 회장

편집인 조용만 사무총장

발행처 대한체육회 홍보실

발행일 2022년 04월 22일

주소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전화 02.2144.8114

팩스 02.420.4233

홈페이지 [www.sports.or.kr](http://www.sports.or.kr)

등록번호 송파, 라 00052

기획·디자인 디자인메카 02.516.1910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http://www.sports.or.kr))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본지에 게재된 기사는 본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발행되고 있습니다.



## KSOC & SPECIAL

### 04 포토에세이

### 08 THEME TOPIC ①

약한 국민 없는 강한 대한민국 스포츠 환경을 위해

### 12 THEME TOPIC ②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스포츠산업  
'스포츠로 스타트업'

### 14 THEME REPORT

- ① 대한민국 체육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전략
- ② 국민 건강권 위해 체육재정 확충을



## KSOC & SPORTS

### 20 ZOOM IN

- ① 스포츠와 함께하는 특별한 일주일, 2022 스포츠주간
- ② 스포츠주간 이벤트-이보다 더 신날 수는 없다!

### 24 HERO OF GENERATION

유니크한 춤 선의 장인을 꿈꾸다  
브레이킹 국가대표 '비걸 김예리'

### 28 SPONOMICS

스포츠로 일군 일석이조! 지역경제 UP, 시민건강 UP

### 30 TECH INSIGHT

배드민턴 셔틀콕의 비밀-  
0.15초 셔틀콕이 날아오는 시간

### 34 워드 SPORTS 7330

직업, 취미가 같은 이들이 모여 흘리는 건강한 땀방울  
불암클럽 다조 배드민턴 동호회

### 38 학교야 체육하자!

- ① 초등 저학년, 체육 교육 강화해야
- ②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체육인을 양성하다  
대구상원고등학교



## KSOC & TREND

### 44 NEW NORMAL & SPORTS

건강관리의 패러다임,  
'절제'가 아닌 '즐거움과 편리함' 헬시 플레저

### 46 SNS 라이브

대한체육회 각본·연출로  
'꿀잼'과 '실속'까지 챙겼습니다!

### 48 가볍게 스포츠

각양각색, 구기종목 공의 크기를 알아볼까요?

### 50 가볍게 여행

바람 타고 자전거 타고  
라이딩하기 좋은 서울 근교


### 52 KSOC 모의고사

도전! 나도 Sporter

### 54 KSOC NEWS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지금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으세요?  
소중한 가족과의 추억 만들기 어떠세요?

미소가 떠오르는 행복한 추억들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따뜻한 기억들을  
당신과 함께 했습니다.  
소중한 이들과 함께하는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즐거움과 위대함,  
‘특별함’이 담긴 ‘일상’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

**스포츠 가치 실현을 위한  
건강하고 정의로운  
전제조건이다**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고,  
일상생활에서 스포츠 가치를 실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며 승리를 지향해야 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차별과 편견 없이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도 마찬가지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환경이 서로 존중하고 공존하는  
스포츠 문화를 확산하는 일,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가장 정당한 방법일 것이다.



글. 이영희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

지난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해 도핑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에바(15)의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WP는 “발리에바가 프리스케이팅으로 메달 경쟁에서 밀려나 눈물을 흘린 모습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영원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약한 국민 없는 강한 대한민국 스포츠 환경을 위해







## 스포츠의 공정성과 가치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

1960년 로마하계올림픽 당시 덴마크의 사이클 선수인 크누드 예센이 흥분제를 사용했다가 경기 도중에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올림픽에서 도핑 검사가 시작됐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도핑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회피수단의 발전, 약물 디자인이 등장한 반면, 도핑방지를 위한 노력과 기술의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도핑 적발 시 제재 수위가 높아졌고,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선수시료의 누적된 분석결과에서 선수의 바이오마커를 추가로 분석하여 도핑을 적발하는 선수생체수첩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고의로 약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정보활동 및 조사 강화 등 스포츠의 공정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도핑의 억제를 위해 전 세계의 도핑방지 기구와 전문가들이 지속해서 노력 중이다.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그 가맹 경기단체의 모든 등록선수, 가입단체, 클럽, 팀, 협회 등 이른바 아마스포츠는 해당 단체규약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한국도핑방지규정(Korea Anti-Doping Code, KADC)’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선수들은 한국도핑방지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도핑검사를 받는데, 선수 등 피검사자로부터 소변과 함께 혈액도 시료로 채취되어 도핑검사를 받는다. 혈액도핑검사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2010년이다.

## 지속되는 러시아 선수들의 도핑 의혹

도핑의 유혹은 아마선수와 프로선수 중 누가 더 받을까? 사실 프로와 아마의 구분이 모호해진 지금, 아마선수와 프로선수 모두 비슷한 정도로 도핑의 유혹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마선수는 KADA의 관리하에 소변도핑검사와 함께 혈액도핑검사를 받고, 도핑검사 결과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밝혀지면 선수자격 정지, 더 중하게는 영구제명의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외부적 억제를 받는다.



지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때의 가장 큰 이슈는 러시아 여자 피겨선수의 도핑 의혹이었다. 그가 올림픽 출전 전에 참가한 ‘2022 러시아 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 도핑검사에서 비특정 약물(Non-Specified Substance)인 트리메타지딘(Trimetazidine)이 검출됐다. 원칙대로라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임시자격정지를 부과 받았음에도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해서 단채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시상식은 무기한 연기됐다가 끝내 무산됐다.

검사 결과 양성인 드러났음에도, 스포츠중재법원(CAS)은 발리에바의 피겨 개인전 출전을 허용했다. ‘16세 미만’인 나이가 출전 허용의 명분이 됐다는 지적이다. 세계 스포츠계는 “이런 식이면 16세 미만 선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도핑을 해도 된다는 뜻이냐”며 발끈했다.

도핑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러시아 선수의 경우처럼, 미성년자로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주변인들이 도핑에 개입했을 수도 있다. WADA 규정엔 ‘미성년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CAS에서도 WADA 규정과 여러 상황 등

을 고려해 발리에바의 피겨 개인전 출전을 허용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한 것’에 대해 전세계 스포츠계의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더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 필요

현재까지는 해당 선수에 대한 잠재적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결과관리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 등 어떠한 정보도 공개된 바가 없다. 현재까지 WADA와 국제검사기구(ITA)에서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RUSADA는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 및 러시아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잠재적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WADA의 독립 정보조사국에서도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도핑방지규약 조항(제20.3.12조)에 따르면



‘보호대상자’로 규정하는 선수의 도핑방지규정위반의 경우 반드시 선수지원요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 역시 진행 중에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결과관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이나 추측은 어렵지만,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러시아)의 만 15세인 어린 선수에게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가 제기된 것에 대해 전 세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도핑검사에서 200배 이상의 성분이 검출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라면 당연히 조심해야 하고, 선수가 몸담은 관계기관은 철저히 도핑을 교육할 의무가 있다.

러시아 선수의 시료는 2021년 12월에 채취되었지만 분석을 우선으로 하지 않아 대회 중 양성결과가 보고되어 문제가 된 사건이다. 해당 선수가 도핑방지규정위반을 범하였는지, 이에 따른 어떠한 결과조치가 부과될 것인지, 또는 지도자 등 선수지원요원이 연루되어 있는지 등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과나 결론은 WADA 및 러시아도핑방지기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 클린스포츠 지향과 도핑방지 인식 제고

WADA는 IOC에 의해 올림픽 역사가 10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인 1999년 설립됐다. 국제스포츠계도 약물에 대한 인식이 터졌다. 현재 WADA가 인정한 각국 지부, 위탁 기관은 30곳이 넘는다. 4월 8일은 금지약물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WADA가 지정한 세계도핑방지의 날이다.

이 날은 공정하고 평등한 클린스포츠를 지향하며, 도핑방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날이다. 2013년 라틴 아메리카 지역 17개국을 대상으로 개최된 WADA 교육 컨퍼런스에서 처음 선언된 후 매년 4월 중 하루를 선정해 전 세계 스포츠계가 참여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발전했다.

WADA는 올해 4월 8일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 등을 고려, 평화를 위한 ‘세계도핑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스포츠계에 평화와 화해의 정신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지금 세상에 부족한 공정성, 화합, 존중의 의미가 있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평화를 위한 스포츠’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WADA 선수위원장 밴 샌포드는 “도핑방지의 날은 공정한 스포츠, 깨끗한 스포츠는 물론, 스포츠의 무결성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평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 2022 세계도핑방지의 날 기념식 및 2025 WADA 총회 유치 도전

KADA(위원장 이영희)는 지난 4월 12일 부산광역시 벅스코 컨벤션홀에서 ‘약한 국민 없는 강한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2022 세계도핑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홍 대한체육회장(IOC 위원), 유승민 IOC 선수위원,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등의 축하 영상을 통해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스포츠 가치실현을 위한 노력을 응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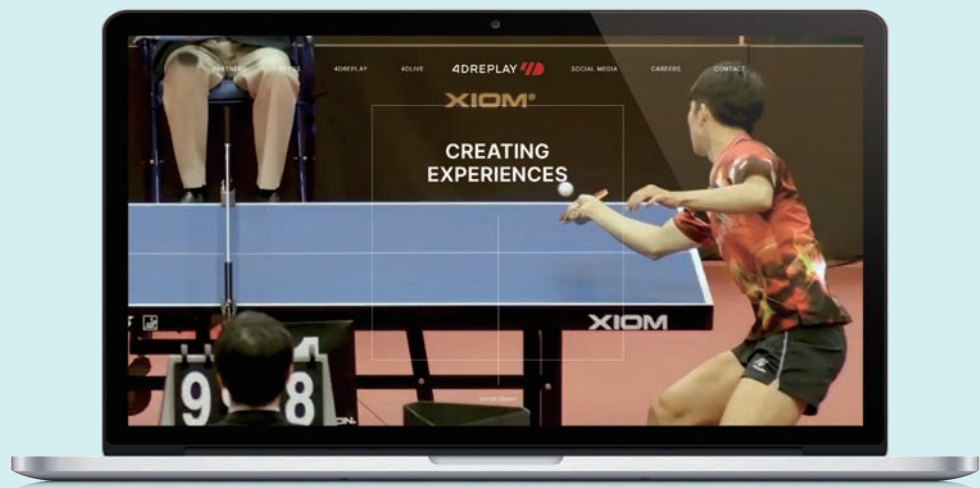
KADA는 2025 WADA 총회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부산, 강원 3개 도시가 신청한 국내 후보도시 평가회에서 만장일치로 부산을 선정하고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KADA와 부산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장인화 부산광역시 체육회장(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유치위원장으로, 이영희 KADA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추대하여 본격적인 여정에 돌입했다.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IOC 선수위원 등을 고문하고 배구 김연경, 펜싱 구본길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앞으로 유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금지약물 복용에서 스포츠를 지키는 것은 스포츠계 전체가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하는 일이다. 이는 스포츠 가치는 물론 선수 생명, 장기적으로 그 선수의 은퇴 후 건강과 죽음까지 삶을 지키는 일이다. 상대를 이기기 전에 자신을 이겨야 하고 자신을 이기려면 약물을 이기는 게 스포츠 정신의 요체다. **SPORTS1**

##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스포츠산업 ‘스포츠로 스타트업!’

글. 편집실 / 사진. 각 사 홈페이지

많은 스포츠 소비자가 새로운 기능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스포츠산업 육성과 창업 투자를 늘리며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산업을 선도하는 지금 핫한 스타트업 기업 두 곳을 살펴봤다.



### 포드리플레이 시·공간이 결합된 4차원 영상의 새로운 경험

‘포드리플레이(4DREPLAY)’는 4차원 특수 영상 제작 솔루션 스타트업 기업이다. 스포츠 중계에 최적화된 하이라이트 영상 제작 기술과 종목별 특화된 영상 분석 솔루션을 개발해 MLB, NBA, PGA 등 전 세계 스포츠 경기에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스포츠 팬에게 혁신적인 시청 경험을 선사하고 K-영상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사상 최초 무관중으로 진행된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태권

도 등 50여 개 종목에 포드리플레이의 360도 영상기술을 적용해 입체적인 중계로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포드리플레이의 주요 기술인 360도 타임 슬라이스(Time-slice) 영상 솔루션 ‘4DReplay’와 세계 최초 5G 기반 다(多)시점 실감 미디어 솔루션 ‘4DLive’는 고화질의 실감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피사체의 동작을 정면, 후면 등에서 촬영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제한된 경기 관람 환경에서 현장의 생생함을 화면을 통해 전달했다. 경기 장면을 개인의 의지와 취향에 따라 조정하며 즐기는 시청환





경을 구현해 스포츠 경기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융·복합 기술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에서 창업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포다리플레이는 글로벌 리딩 미디어 테크놀로지(Media Technology) 기업이다. 지난 2016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래 전 세계 스포츠 중계 시장에서 꾸준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미식축구에 360도 영상 중계 솔루션 4DReplay와 4DLive 서비스를 적용해 전 세계 시청자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 플레이콧

### 스포츠로 건강한 놀이문화 창조

‘플레이콧’은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오프라인 모임 활동, 장소 대관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포츠에 특화된 중개 플랫폼이다.

엘리트체육 선수와 생활체육인을 이어주는 중개서비스로, 운동을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은퇴 선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에게는 체육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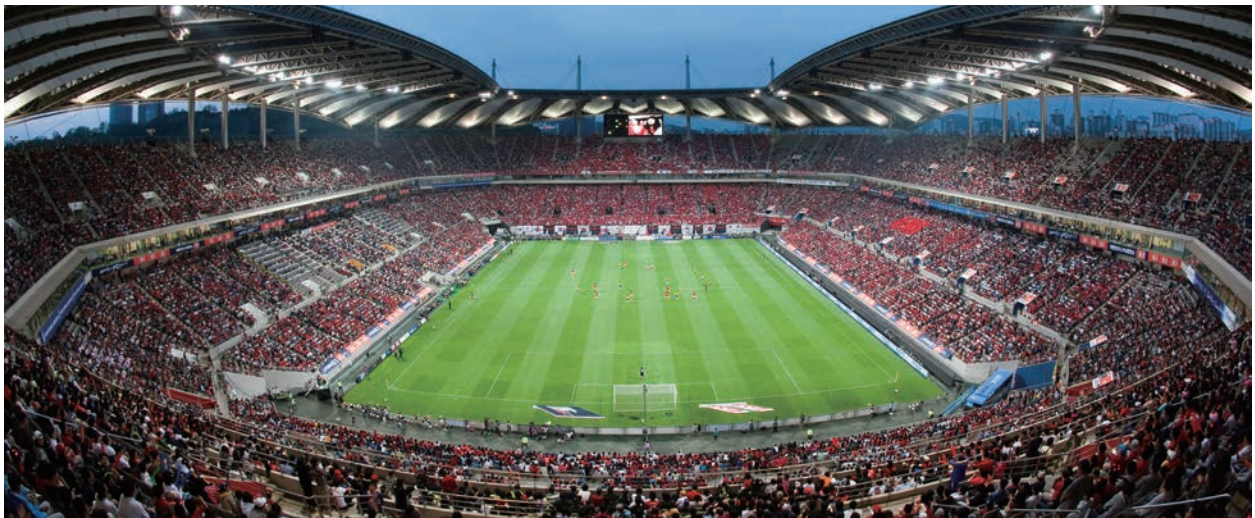
마련해 줌으로써 스포츠 참여의 장을 확대하고 있다. 동호회가 있지만 초급자들이 접근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의 강습시설은 획일화된 프로그램으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플레이콧은 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획일화된 시장에서 명성을 쌓고 있다. 소비자는 일반초급자 과정을 비롯해 레벨 스킬을 올리기 위한 과정, 지도자 및 전문라이센스 과정으로 세분화해 트레이닝하고 있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파트너 협력사, 강사와의 프로그램 판매라는 단순 협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론칭하는 스포츠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레이콧은 생활 속에서 스포츠 활동을 창조하고 스포츠로 건강하고 즐거운 놀이문화 활동을 이을 계획이다. 아시아권 스포츠 투어를 기획하는 등 고객이 즐길 수 있는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플레이콧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스포츠 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검도와 태권도 그리고 유도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종목을 서비스하며 스포츠 교육관광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SPORTS1**

# 대한민국 체육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전략

글. 서진범 대구광역시체육회 경기운영부장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많은 시간과 재정적 지원, 피나는 노력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더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더 좋은 방법을 찾는 능력을 가진 민족이다. 스포츠가 사회를 지탱하는 힘을 갖고 있음을 잊지 말자.



##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스포츠 경쟁력

80년대를 거치며 최근까지 우리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 스포츠는 어떠했는가? 강대국과 스포츠강국 사이에서 국가의 경제적 지위에 비해 높은 수준의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의 경제성장과 국력을 갖추나가고 있는 반면에 스포츠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신호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020 도쿄올림픽의 성적 부진, 국제스포츠 경기력의 약화, 학교 및 실업 운동선수 및 팀 감소 등에서 말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다시 돌아온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의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물론 올림픽의 메달만으로 스포츠 경쟁력을 평가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다.

이러한 위기감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은 아니다. 현장의 많은 체육인과 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온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다양한 정책과 대안이 제시되었으며, 그중 시행된 정책도 있고 묻혀버린 목소리도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체육정책 방향이 최선의 선택인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인구감소와 선수 저변확대 정책의 충돌

인구감소와 저출산은 최근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이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는 5,162만 명으로 1970년 3,224만 명 대비 약 1.6배 증가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총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2021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5,119만 명, 2050년에는 4,735만 명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당연히 학생 수도 줄어들고 학교 운동부 인원도 줄어들고 있어 선수 저변 확대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에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통합하여, 생활체육이 토대가 되어 전문체육이 발전하는 이상적인 그림을 그린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스포츠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곳곳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통합이라는 선진국형 모델을 기초로 추진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교육현장과 사회적 시스템에는 왠지 어색하다.

몇몇 종목에서는 가능성이 보이기도 한다. 태권도, 수영, 배드민턴 등 일찍부터 저변 확대가 이루어져 있는 종목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유기적으로 선수층을 공유하고 선수 육성 시스템이 일정부분 체계적으로 작동된다. 하지만 비인기 종목, 저변 확대가 안 된 종목에서는 통합시스템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생활체육을 지원해도 활성화는 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지원은 줄어드는 전문체육 종목이 어려움을 겪는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만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컬링이나 스켈레톤 종목을 생활체육으로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체육을 발전시켰다면 평창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 체육계에 나타나고 있는 혁신의 패러독스

혁신의 역설(Innovation Paradox)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활동을 해왔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거나 더 나빠지는 경우를 말한다. 혁신의 물결에 휩쓸려 지켜야 할 것들을 버리진 않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한때 선진국의 방식을 받아들여 성공한 정책과 방향이 있다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버리고 혁신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옳은 방식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저출산에 의한 학생선수 감소, 제한된 생활체육 활성 종목, 비인기 종목 쇠퇴, 스포츠 인권 문제, 선수들의 교육권 소외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만의 실현 가능한 K스포츠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 학교 운동부를 살려야 한다. 교육권 보장, 학교 운동부 문제 등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학생 수의 속도보다 더 빨리 줄어들고 있는 학교 운동부를 살려야 한다. 정부와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로 운동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야 될 것이다. 선진적인 훈련시설과 훈련장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도 더욱 늘려야 한다. 학습권 보장과 함께 선수들의 운동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주자. 기존의 지도 인력과 시설 장비로는 예전보다 제한된 훈련시간으로 효과적인 경기력을 기대할 수 없다. 코치, 트레이너의 인원을 늘려 제한된 시간에 집중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감독, 코치, 트레이너의 인력 확대는 은퇴선수들의 진로 확대 효과도 따라와 비인기 종목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전문 선수들의 경력 연장 방안이었던 국군체육부대 축소, 경찰체육단 해체를 원복해야 한다. 2009년 25종목 600여 명이던 국군체육부대는 2021년 25종목 350명으로 줄어들었고, 해양체육단은 해체되었다. 비인기 취약 종목들의 경력 연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모집 종목을 재편성하여 증원되어야 한다. 징병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군·경찰 등 국가기관에서 선수들을 위한 대체 복무 방안은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정책 중에 하나이다. 비인기 종목의 안정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전문선수 중 일반부 선수들의 경력유지 측면에서 군복무는 경력단절의 문제를 야기하여 선수 생활을 포기할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2020년 한국정책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현역 복무 후 선수로 다시 복귀하는 비율은 12.49%에 불과하다고 한다. 선수들의 군복무기간 중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세 번째, 스포츠과학적 훈련 지원을 통한 선수 관리 체계가 확대되어야 한다. 양적 성장이 어려운 현재의 스포츠 환경에서 선수들의 기량 향상 및 경기력 유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스포츠과학적 현장지원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 2015년부터 지역거점스포츠과학센터가 구축되어 현재 17개 시·도중 11개 시도에 지역스포츠과학센터가 설치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수요에 맞는 예산을 통합 지원하고 시설과 장비,





인력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양적으로 줄어든 선수들을 과학적으로 지원하여 우수한 선수로 키워야 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과학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부상 선수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선수들이 부상 후 적절한 재활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여 선수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선수 복지 차원에서 지역 내 부상 선수들을 대상으로 컨디셔닝 및 재활센터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스포츠과학센터에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명의 선수라도 소중히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

## 현장이 답이고 미래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짧은 기간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이끌어 이루어낸 방식이었다. 스포츠도 전문체육이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을 지탱하는 힘이였다. 이를 한순간에 생활체육을 토대로 전문체육과 학교체육을 발전시키는 모델로 변화시키는 것은 주변 사회 환경과 맞지 않는 틀을 끼워 맞추는 형상이다. 교육부와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기존의 체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획하였으나 현장에서 들리는 수많은 문제점과 목소리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 제시된 정책들에 의해 시스템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고, 현재 우리 스포츠 경쟁력은 서서히 도태되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 중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선수, 지도자, 종목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는 시간과 그에 따른 고민의 시간도 필요하다.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많은 시간과 재정적 지원, 피나는 노력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더 좋은 방법을 찾는 능력을 가진 민족이다. **SPORTS1**



## 국민 건강권 위해 체육재정 확충을

글. 김승곤 대한체육회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는 세계 10위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57년 만에 그 지위를 격상시켰다.  
반면 세계 10위권 이내 성적을 유지하던  
한국 스포츠는 비슷한 시기에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1984 LA올림픽 이후  
37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종합 16위)을 거뒀다.



단순히 올림픽 순위 하락만이 한국 스포츠의 문제는 아니다. 열악한 지도자 처우에 따른 인권침해 등 학교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 전문체육 성장 기반인 직장 운동부 감소와 함께 은퇴 선수의 높은 실업률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체육 인프라 부족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학교체육 활동으로 청소년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청소년 비만을 또한 증가 추세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방체육회장이 당연직에서 선출직으로 민선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의존성이 늘어나 예산 확보 및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회원종목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에 기인한 안정적 조직 운영 여건 미흡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현재 79개 회원종목단체와 그 아래 8,800여 개의 시도, 시군구 단체 및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를 관장하며 생활체육, 전문체육,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90여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사업별로 주어지는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산적한 체육계 현안을 해결할 수 없으며 미래세대 육성 등 새로운 비전을 위한 사업 추진 동력 또한 매우 부족하다.

대한체육회 예산 대부분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다. 대한체육회가 보유한 기금(411억 원)과 대한체육회가 승계해야 할 1988 서울올림픽 수익금(3,110억 원)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가 공단 수익금으로 체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와 명분은 충분하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스포츠토토·2020년 기준 연 1조5,540억 원)이다. 이는 기금 수입의 90%를 차지한다. 대한체육회는 정해진 사업에 한하여 정책의 지원금을 받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시시각각 달라지는 체육 분야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개개인 맞춤형 스포츠 환경 구축과 체육계 일자리 창출 및 처우 개선, 그리고 체육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50%를 정률로 대한체육회에 배정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220만여 명의 체육인이 이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찬성하는 서명을 했다.

중국 사상가 량치차오는 “국민의 체력은 그대로 국력이 다”라고 했다. 체력은 비단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세계와 경쟁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노인 의료비가 2016년 25조 원에서 2020년 37조4천억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오늘날 현실에서 운동을 통한 건강한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그리고 감염되어도 중증으로 가지 않고 빠르게 회복되기 위해 백신 접종을 받듯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스포츠라는 백신도 필요하다.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0% 정률 배정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건강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SPORTS1



# 봄바람타고 온 전 국민 체육시간! 스포츠와 함께 하는 특별한 일주일, 2022 스포츠주간

글. 편집실

어김없이 돌아온 4월 마지막 주 스포츠주간, 올해는 여전한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60회를 맞았다. 아쉽게도 예전과 같은 오프라인 스포츠 행사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혼자도 좋고 가족과 함께해도 좋은 스포츠가 일상이 되는 특별한 일주일을 즐겨보자.

제60회 2022년 스포츠주간  
4월 24일(일)~30일(토)



## ‘운동하기 좋은 날’ 특별한 일주일

스포츠가 우리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스포츠를 함께 체험하고 관람하는 특별한 일주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체육단체와 함께 2022년 스포츠주간을 시행한다.

스포츠주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년 4월 마지막 주간에 실시되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장 및 학교 등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스포츠 행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정에 맞게 운동 경기, 씨름, 그네 등 민속 체육 행사, 레크리에이션 활동, 체육에 관한 전시회, 강연회 등, 기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행사를 개최하며 스포츠주간을 장려한다.

그동안 스포츠주간에는 지자체별 종합체육대회와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가 개최됐다.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 할인 및 체육시설 입장 할인과 개인 맞춤형 체력증진 및 운동처방 서비스 등도 제공됐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종합체육대회가 각 시도, 시·군·구 체육회를 중심으로 개최됐다. 스포츠주간과 함께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에는 프로야구 관람료 50% 할인 혜택이 제공되기도 했다. 특히 인천의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대구의 장애공감축제, 강원도의 어린이 태권도 대회 등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는 체육행사들이 풍성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형 SNS 행사와 다양한 운동 콘텐츠를 제공하고,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올해로 60회를 맞이한 2022년 스포츠주간에는 별다른 행사가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야외활동을 하며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기지개를 켜고 다음 해의 스포츠주간을 기약해 보자.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두된 국민 건강

2021년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60.8%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0.7%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읍면 이하 지역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1위 '공공체육시설(22.1%)', 2위 '민간체육시설(20.6%)', 3위 '기타 체육시설(14.9%)' 순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달리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이 민간체육시설 이용률을 앞지른 것이다. 체육시설 선호도에서도 공공체육시설은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는 운동은 전년도와 같이 1위 '걷기(41.4%)', 2위 '등산(13.5%)', 3위 '보디빌딩(13.4%)' 순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유·청소년 클럽리그와 디비전 리그를 추가 신설('21년 150억 원 → '22년 314억 원) 하고,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되는 6월부터는 등록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순회지도자 파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76개 국민체력인증센터를 통해 비대면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체력인증등급도 세분화할 계획이다.

### 주 이용하는 체육시설

- 1위 공공체육시설 **22.1%**
- 2위 민간체육시설 **20.6%**
- 3위 기타 체육시설 **14.9%**

### 주로 참여하는 운동

- 1위 걷기 **41.4%**
- 2위 등산 **13.5%**
- 3위 보디빌딩 **3.4%**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스포츠주간에 '운동 뭐하니?' 행사를 개최했다. 이 기간 동안 인스타그램에 3일 이상 '일상 속 운동하는 모습'과 '올해의 운동 목표 메시지'를 올리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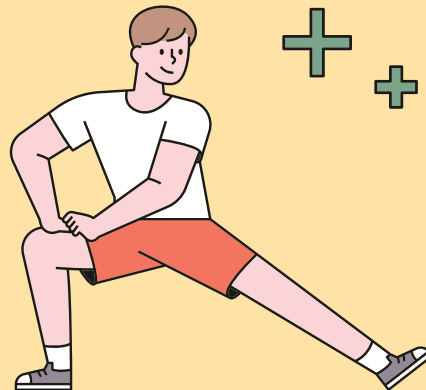
올해 스포츠주간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아쉽게도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대규모의 행사는 없지만 혼자, 또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공원이나 운동장을 찾아 몸을 풀어보자. 스포츠주간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스포츠를 접하고, 생활체육에 참여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봄바람과 따뜻한 햇살과 그리고 스포츠주간, 이제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때다. **SPORTS1**

제60회 2022년 스포츠주간 이벤트

이벤트에 응모하고  
맛있는 간식과 선물 받으세요!

운동 할 맛 난다  
이보다 더  
신날 수는 없다!

집안엔 봄 햇살이 가득가득, 밖엔 봄바람이 살랑살랑.  
어김없이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체력보충이 필요한 시간,  
미리미리 준비해 건강한 일상으로 Go하자Go요!



응모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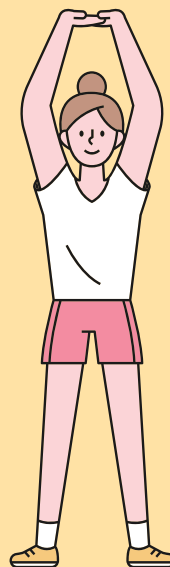
2022.04.25.(월)~05.12.(목)



**이벤트 하나!****함께 운동하고, 간식 먹Go!****너랑 X 나랑 운동해!****네**가**짹** 이라서 좋아**공** 짹공 짹 장단 맞춰 신나게

스포츠주간 내 여러분의 체육활동 사진을 공유해주세요!  
 응모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두 분께 **치킨 세트**를 드립니다.

체육활동 사진과 짧은 사연을 함께 보내면 **당첨확률 UP!**

**이벤트 둘!****5행시 짓고, 선물 받Go!****SPORTS1과 함께 건강해봄!****답**은**정** 해져 있어**너**는 선물만 받으면 돼

‘스포츠주간’으로 5행시를 지어 응모해주세요.  
 1등 당첨자 한 분께 **스타벅스 상품권(5만 원)**을 드립니다.

체육활동 사진을 함께 보내면 **당첨확률 UP!**

**제60회 2022년 스포츠주간 이벤트**

‘이벤트에 응모하고 맛있는 간식과 선물 받으세요!’는 QR코드를 찍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움츠려 있던 몸을 활짝 펴고  
 건간강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간,  
 ‘스포츠주간’의 추억을 공유해주신  
 분들께 간식과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하나!**

치킨세트(2명),  
 음료 기프트콘(1만 원-5명)

**이벤트 둘!**

스타벅스 상품권(5만 원-1명),  
 음료 기프트콘(1만 원-5명)

SPORTS1



KSOC & SPORTS

— HERO OF GEN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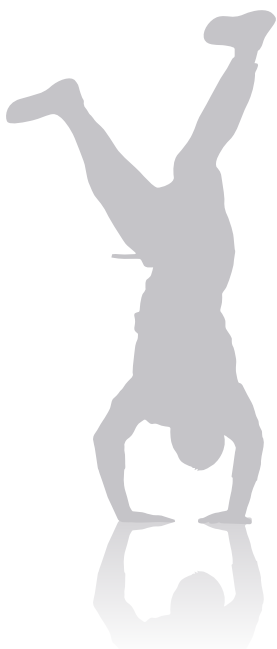


글. 편집실

힙합의 비트에 맞춰 자신만의 춤을 추는 ‘브레이킹’이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과 2024 파리올림픽에서 정식 데뷔한다. 최초의 무대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세계무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비걸(B-girl) 김예리 선수를 만났다.

## 유니크한 춤 선의 장인을 꿈꾸다

브레이킹 국가대표 비걸  
**김예리**



### 브레이킹에는 비보이만 있다? ‘비걸 김예리’가 있다

얼마전까지 ‘비보잉’으로 통용됐을 정도로 남성 위주의 격한 춤 동작이 특징인 브레이킹. 아무리 ‘비걸’이 잘해도 비보이와의 힘과 테크닉 차이를 좁히기엔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고 평가받는다. 이렇듯 신체적 차이에서 오는 실력 차이가 만만치 않은 종목임에도 얼마전까지 남녀 구분 없이 경쟁을 펼쳤다.

세계최강 실력이라고 평가받는 대한민국 비보이들 중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는 것은 이미 세계 최고의 실력자라는 것을 증명한 것과 다름없다. 실력은 물론 신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레벨의 실력자인 것이다. 아무리 좋은 테크닉과 센스를 갖춘 비걸이라 해도 이러한 최고의 비보이를 이길 확률은 희박하다.

신체적 우월함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인 만큼 어쩔 수 없는 격차를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별도의 분리없이 대회가 진행됐다. 이미 별어진 격차 속에서 비걸이 우승할 확률은 제로, 대회에 출전하는 비걸의 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다행히 얼마전부터 남녀를 분리해 대회를 치르고 있다. 신체 장벽을 거두니 자연스럽게 비걸 참가자가 늘었다. 불과 4~5년 사이의 변화다.

우리나라 브레이킹 종목 선수들은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세계최강으로 소문나 있다. 이 때문에 오는 9월에 열리는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메달 획득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듯 실력만큼은 세계최강임에도 열악한 환경과 얇은 선수층 등 극복해야할 문제점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 그중, 여자부문인 전문 ‘비걸’의 수는 20명 남짓, 선수층의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단연코 돋보이는 비걸이 있다. 바로 김예리 선수다.

##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것, 스스로를 넘어서다

김예리 선수는 작년 11월 말 국가대표 선발전인 ‘브레이킹 K 파 이널’ 비걸(B-girl)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국가대표에 뽑혔다. 1대1 배틀로 치러진 파이널 경기, 상대 선수를 압도하는 ‘니스핀(두 무릎을 다 대고 도는 기술)’으로 호응을 이끌며 음악과 유니크한 춤 선이 잘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국가대표에 최종 선발됐다.

“처음부터 국가대표를 목표로 춤을 춘 것은 아니에요. 그저 열심히 춤을 추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회에 나갔더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기뻐서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노력한 만큼 자연스럽게 우승이 따라오고 그것으로 인정받는 것,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열심히 한다는 건 그만큼 힘들다는 말 인데요, 문득 ‘이왕 이렇게 고생하는 거 큰 대회를 목표로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궤도를 수정하고 출전한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유스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세계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궤도를 수정했다.

“19살 때 유스올림픽에 출전해서 동메달을 획득했어요. 지금은 20대고요. 앞으로 계속 나이가 들 텐데, 더 이상의 발전 없이 유스올림픽 동메달리스트로만 남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시니어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이왕이면 우승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제 인생 중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지금, 국가대표가 되어 한 단계 더 도약해보자는 각오로 도전한 거예요.”

더 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인 김예리 선수는 브레이킹 종목 여자 국가대표가 됐다.

## 확고한 신념과 정확한 목표, 나는 국가대표다

김예리 선수는 현재 부상치료와 재활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다른 선수들은 진촌선수촌에 입촌해 훈련을 하고 있는데, 혹시 불안하지 않은지 질문을 던졌다.

“제가 평소에 연습량이 많아요. 치료를 위해 선수촌 훈련에 참여할 수 없지만 철저히 자기관리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너무 뻑세게 한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혹독하게 연습해요. 지금 훈련에 참가하지 못해서 불안하다기 보다는 부상 회복이 더딜까봐 그게 더 걱정이에요.”

김예리 선수는 주로 남자 선수들이 구사하는 파워풀한 기술을 구사한다. 남자선수들이 새롭게 선보인 기술을 따라하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다. 부상이 발생하는 것이 어찌면 당연히 보



꾸준히 하루 5~6시간 정도 연습을 해요.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들을 몸으로 표현해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습관처럼 몸에 배도록  
연습하고 있습니다.  
‘맞아. 예리는 그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야’라는  
말이 듣고 싶고요.





일 정도다. 기존 기술을 파워풀하고 깔끔하게 수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김예리 선수.

“제가 만든 기술은 아니지만 자주 보여주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맞아. 예리는 그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야’라는 말이 듣고 싶고요.”라고 한다.

그렇다면 평소 연습량은 어느 정도일까.

“꾸준히 하루 5~6시간 정도 연습을 해요.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들을 몸으로 표현해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습관처럼 몸에 배도록 연습하고 있습니다. 코치와 감독님이 계셔도 자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듣고 보니 괜히 국가대표가 아니지 싶다. 현재 브레이킹 여자 세계랭킹 1, 2위가 일본 선수들이다. 아시안게임에서 이들과 경쟁해야 한다.

“목표는 당연히 메달 획득입니다. 일본 선수를 넘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준비하고 있어요.

국가대표가 된 후 가장 먼저, 오는 9월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출전해 최고의 성적을 거두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변에서는 부담을 덜고 즐기라고 말하지만 김예리 선수의 목표는 확고했다.

국가대표로 출전한 대회에서 메달을 따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확고한 신념과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김예리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던진 출사표다.

## 브레이킹 너머의 세계, 한계란 없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메달 획득에만 그치지 않는다. 많은 사람에게 브레이킹을 알리며 저변을 확대하는 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아무진 포부도 들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제가 가진 능력으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여자 브레이킹 감독이 되거나 국가대표 감독이 되는 것, 아니면 더 유명해져서 브레이킹을 널리 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인의 명예를 위한 건 아니고요, 그 위치에 올라가면 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거잖아요.”

2000년에 태어난 김예리 선수는 요즘 말하는 Z세대다. 7년 후, 서른 살이 됐을 때 우리나라 브레이킹의 저변확대 등 인프라의 변화가 느껴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40살 정도는 되어야 변화가 느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18살 때 막내로 시작했는데 5년의 시간이 흘러 23살이 되는 동안 한 번도 막내 자리가 바뀌지 않았어요. 학원 등에서 배우는 아마추어 브레이커는 많지만, 실력을 평가받는 프로 세계에 발을 내딛는 비결이 없어요. 과연 7년 사이에 실력 있는 비결이 많이 나올까 싶어요. 브레이킹은 실력이 서서히 느는 종목이에요. 제가 첫 우승을 했던 시기도 브레이킹을 시작하고 5년 만이었죠. 현재 우리나라 브레이커들의 실력이 세계최강이지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브레이킹 강국이 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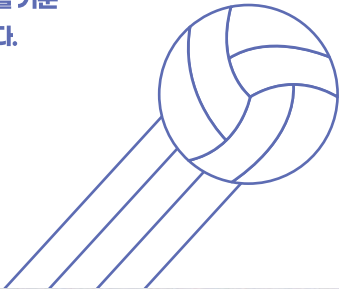
‘Limitles Artist’, 김예리 선수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이다. 브레이킹 선수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며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다. 대한민국 비결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그는 브레이킹 너머의 더 큰 세계를 보며 매진하는 중이다. **SPORTS1**



# 스포츠로 일군 일석이조! 지역경제 UP 시민건강 UP

글. 편집실

스포츠산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시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스포츠 마케팅에  
뛰어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불어 시민건강까지 챙기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지자체를 살펴봤다.



## 스포츠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한 김천시

지난 2018년 3월, 한국도로공사 배구단이 창단 후 첫 통합 우승을 일궈냈다. 정규리그에서 여유롭게 1위를 확정하더니 이어 포스트시즌에서도 압도적인 전략을 과시하며 챔피언 주인공이 됐다. 대부분의 프로팀이 관중유치, 교통편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수도권을 연고지로 두는 가운데, 인구 15만의 중소도시 김천시를 연고로 한 도로공사 배구단의 성공은 이례적 사례로 손꼽힌다. 여기에는 지자체의 지원이 한 몫 했다. 김천시가 연고지 프로구단 육성에 강한 의욕을 갖고 팔을 걷어붙이면서 구단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었다. 시는 2015년 연고지 이전 후, 읍면동 이벤트를 만들어 매 경기마다 시민들에게 프로배구를 알리며 지역에 프로배구가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천시에는 배구 시즌 동안 인근 도시뿐만 아니라 멀리 울산이나 부산, 창원 등지에서 많은 배구 팬이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주말 흥경기가 있는 날이면, 미리 도착해서는 맛집을 검색해 점심을 먹고 스크린 골프, 볼링 등 여가를 즐긴 뒤, 음료수와 간식을 사서 체육관으로 간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시내로 이동해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시민이 가족과 함께 경기장에 와서 같이 응원하고, 경기가 끝난 뒤 이어진 자리에서





©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배구단 홈페이지

배구 애기를 나누는 문화가 생겼다. 김천시가 배구로 인해 함께 보고, 즐기는 건강한 스포츠 중심도시로 탈바꿈됐다.

### 스포노믹스, 소도시의 반란

경남 남해군은 전체 인구가 4만여 명에 불과한 시골 도시다. 하지만 이 작은 마을을 찾는 전국의 스포츠 팀 선수들은 한 해 4만 명에 육박한다. 남해군 측은 올해 1분기에만 전지훈련 등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최소 25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겨울철 따뜻한 기후는 남해군의 스포노믹스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해외 전지훈련지 못지않은 쾌적한 날씨에 시설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남해를 찾는 팀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인구수 대비 인바운드 내방객 비율만 놓고 보면 국내 최대다. 올해 초엔 한국 프로축구 K리그 주요 구단들이 남해를 찾았다. 이로 인해 새상권도 주목 받는다. 선수들의 훈련장소 주변과 바닷가 인근 등에는 크고 작은 숙박시설과 식당 등이 생겨나면서 손님맛이에 분주하다.

강원도 양구군은 스포츠 도시마케팅 활동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탈바꿈했다. '3년 연속' 2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두면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지난해에는 스포츠마케팅으로 약 203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뒀다. 22개 스포츠 종목에 107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연간 26만여 명이 양구를 방문한 결과다. 양구군은 최근 스포츠를 넘어 관광까지 연계한 시너지를 높여 스포노믹스 전략을 지역 발전의 미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내놔다.

### 인프라 확충 및 특화전략 필수

남해군과 양구군의 사례와 같이 전지훈련이나 스포츠이벤트 유치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더불어 관광과 엔터테인먼트 등과 결합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통로가 된다는 개념이다. 지자체들이 스포노믹스 개념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전국 각지의 지자체는 저마다 지닌 자원과 인프라, 산업적 생태계가 재각각이다. 지역 특화주력 산업이 존재하지만 저성장 고령화로 인한 실적 저하엔 속수무책이다.

이 때문에 특화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는 지자체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 순천시는 멀티형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국내 스포츠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래 지향적인 스포츠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 아래 스포츠대회와 이벤트 유치 등을 비롯해 전지훈련팀 유치와 가족형 스포츠 타운 조성으로 특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스포노믹스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잇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맞춤형 특화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됐다. 지역에 새 상권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한 전력질주는 이미 시작됐다. **SPORTS1**

©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배구단 홈페이지







배드민턴  
셔틀콕의 비밀

0.15초 셔틀콕이  
날아오는 시간



글. 편집실

영국의 지명에서 파온 배드민턴은 귀족들이 즐기던 게임으로 경기 매너가 매우 엄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8 서울올림픽에서의 시범종목을 거쳐 1992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경기에서 선수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셔틀콕, 생활체육에서의 인기 종목이기도 한 배드민턴 셔틀콕에 대해 알아봤다.

## 5g의 과학

### 깃털의 비밀

셔틀콕을 타격하는 순간 깃털의 폭이 좁아지면서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를 낸다



깃털의 폭 좁아짐  
속도 증가 ▲



깃털의 폭 넓어짐  
속도 감소 ▼

## 거위 거드랑이 비밀에 답이 있다?

셔틀콕이란 왕복을 의미하는 'Shuttle'과 닭을 의미하는 'Cock'이 결합된 단어다. 서로 셔틀콕을 '주고받는' 경기인 만큼 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셔틀콕에 달린 깃털이 과거에는 닭의 깃털이었기 때문에 닭이라는 단어가 결합됐다. 그러나 얼마전까지 올림픽 경기에 쓰인 셔틀콕의 깃털은 거위 깃털이다. 거위 깃털로 만든 셔틀콕은 바람의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선수가 의도한 방향으로 더 잘 움직인다는 장점이 있다.

셔틀콕의 딱딱한 부분은 작은 반구형의 코르크로, 코르크에는 새끼 염소의 가죽이 씌워져 있다. 코르크의 가장자리에 꽂혀 있는 16개 깃털이 바로 거위의 거드랑이 깃털이다. 일반적으로 거위 1마리에서 쓸 수 있는 깃털은 최대 14개 정도인데 양 날개 아래인 거드랑이 부근의 깃털을 셔틀콕으로 사용한다. 셔틀콕의 깃털은 빠른 속력으로 넘어온 셔틀콕이 코트 바닥으로 천천히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아 코르크에 꼽힌 깃털의 결을 타고 공기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면서 셔틀콕에 회전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가는 효과가 있지만 이보다 셔틀콕 전체에 가해지는 공기의 저항이 훨씬 더 크다. 셔틀콕이 직선으로 빠르게 날아가다가 갑자기 포물선을 그리며 유유히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깃털 16개가 꽂힌 최상급 셔틀콕 1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위 4마리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높은 탄력도를 위해 살아있는 거위의 깃털을 뽑았지만 동물 학대 논란 등의 이유로 죽은 거위의 깃털을 사용해 셔틀콕을 제작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공인한 모든 등급의 국제대회에서 인조 깃털 셔틀콕을 사용하고 있다. BWF는 배드민턴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고 자연 깃털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인조 깃털 셔틀콕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인조 깃털 셔틀콕은, 셔틀콕 사용량을 기존보다 25% 정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경·경제적 측면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다.

## 최고 순간 속도의 제왕 셔틀콕의 비밀은 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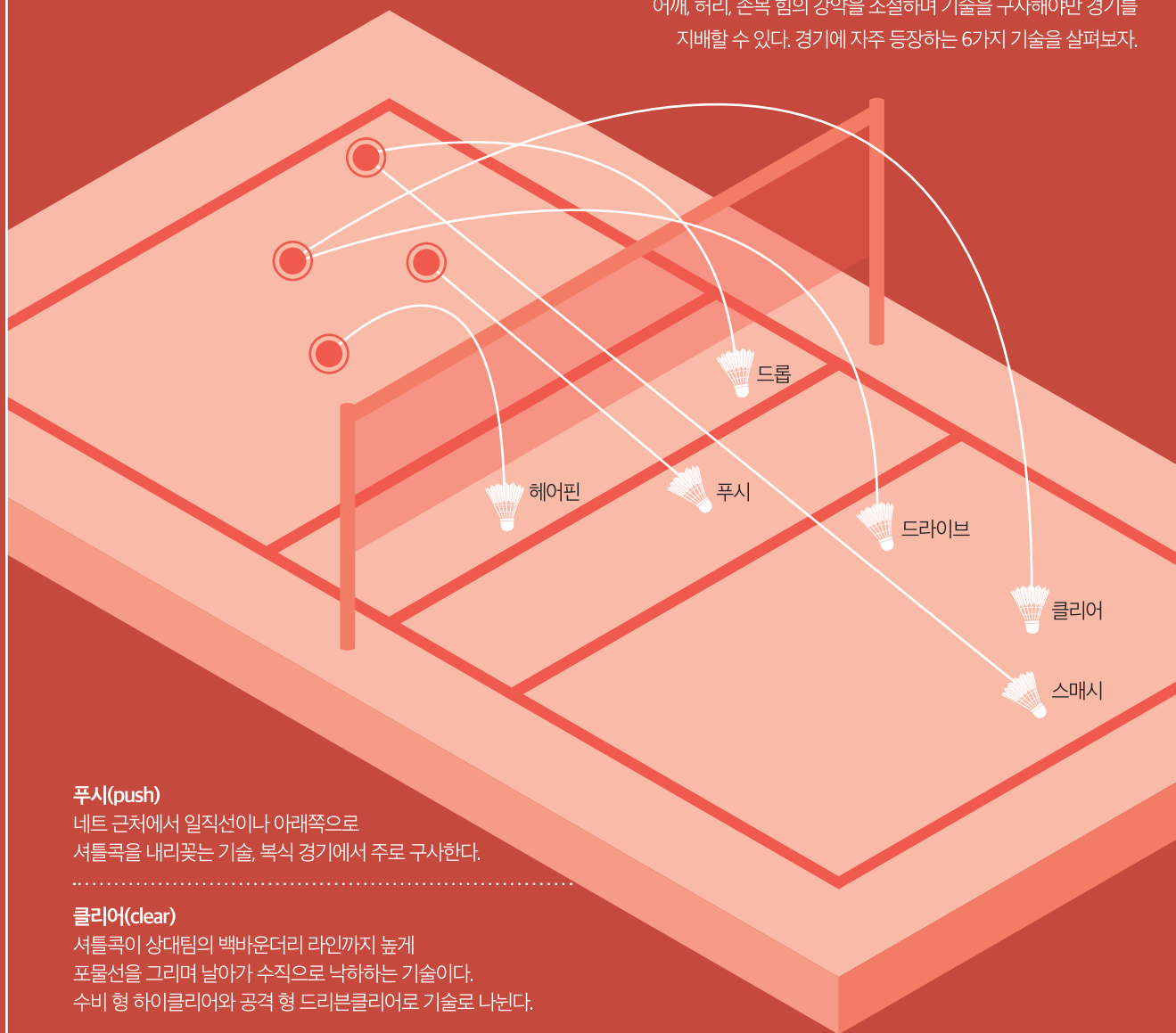
배드민턴 셔틀콕의 무게는 4.75~5.5g 정도로 매우 가볍다. 하지만 배드민턴 라켓으로 타격하는 순간 평균 시속 100km에서 최고 300km 이상의 속도를 내기 때문에 '5g의 과학'으로 불린다. 셔틀콕의 속도는 양궁의 화살이나 야구공이 날아가는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속도에 맞먹는다. 일본의 한 배드민턴용품 제조사가 실험한 셔틀콕은 시속 493km를 기록하기도 했다. 셔틀콕의 둥근 부분을 라켓으로 세게 치면 셔틀콕은 빠르게 날아간다. 이 때 같은 크기의 다른 공에 비해 매우 큰 가속도를 받는데, 무게가 가볍고 힘이 클수록 가속도가 커지는 원리 때문이다. 반면에 떨어질 때 셔틀콕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는 이유는 셔틀콕에 달린 깃털 16개가 공기와 닿는 면이 넓어 저항력(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빠른 셔틀콕을 선수들은 어떻게 받아 치는 걸까? 강하게 때린 셔틀콕이 코트를 가로지르는 데는 보통 0.15초가 걸리지 않는다. 선수 사이의 평균거리가 8~10m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0.1초 안에 셔틀콕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인간의 반응시간에는 한계가 있다. 제아무리 운동신경이 뛰어난 선수들도 일반적으로 0.2~0.3초의 반응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수들은 미리 움직인다. 배드민턴 경기를 보면 상대 선수의 라켓에 셔틀콕이 맞기도 전에 선수들이 리시브 동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 선수의 전체 움직임을 주시하는 가운데 찰나의 순간에 미리 셔틀콕의 이동 방향을 예측하고 움직이며 셔틀콕을 받아내는 것이다.

선수들은 반사 신경을 기르기 위해 네트에 검은 장막을 치고 훈련한다. 셔틀콕이 어떤 방향에서 날아오더라도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게 단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대부분 상대의 몸동작이나 셔틀콕의 위치, 라켓의 스윙 각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선수들은 시선조차 상대에게 노출하지 않는 훈련을 한다. 경험을 통해 상대의 공격 자세만 보고 미리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종목, 바로 배드민턴이다. **SPORTS1**

## 배드민턴 기술=손목의 힘

배드민턴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목의 힘이다. 배드민턴에는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손목 힘의 강도를 조절하며 다양한 기술을 구사한다. 어깨, 허리, 손목 힘의 강약을 조절하며 기술을 구사해야만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경기에 자주 등장하는 6가지 기술을 살펴보자.



### 푸시(push)

네트 근처에서 일직선이나 아래쪽으로 셔틀콕을 내리כות는 기술, 복식 경기에서 주로 구사한다.

### 클리어(clear)

셔틀콕이 상대팀의 백바운더리 라인까지 높게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수직으로 낙하하는 기술이다. 수비 형 하이클리어와 공격 형 드라이브클리어로 기술로 나뉜다.

### 드롭(drop)

짧고 가볍게 꺾어 쳐서 상대팀 네트 근처에 셔틀콕을 떨어뜨리는 기술로 스윙방식은 클리어나 스매시와 같다. 스매시하는 척하다가 드롭을 구사해 상대팀을 속인다.

### 스매시(smash)

높이 떠오른 셔틀콕을 상대팀 코트를 향해 직각에 가깝게 내리כות는 기술로 배드민턴의 '꽃'이라고 불린다. 힘의 정도에 따라 풀 스매시와 하프 스매시로 구분한다.

### 드라이브(drive)

셔틀콕이 어깨와 허리 사이로 들어올 때 받아 치는 기술이다. 네트 위쪽을 스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셔틀콕을 넘기는 만큼 손목 스윙이 중요하다

### 헤어핀(hairpin)

네트 가까이에서 셔틀콕을 네트에 최대한 가깝게 쳐올려서 넘기는 기술이다. 넘어가는 모양이 동그랗게 구부러진 헤어핀처럼 생겼다고 해서 헤어핀이라 불린다.



글·편집실

2002년 조직된 '불암클럽 다조 배드민턴 동호회'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즐겁게 운동하고 즐거운 삶을 나누는 동반자로 발전했다. 서로에 대한 배려를 중요하게 여기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불암클럽 박남균 회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 직업, 취미가 같은 이들이 모여 흘리는 건강한 땀방울

## 불암클럽 다조 배드민턴 동호회







### 불암클럽 다조 배드민턴 동호회

#### 온라인 활동

단체 카톡방 활용

#### 동호회 조직일

2002년 11월

#### 동호인 수

30여명

#### 모임 주기

격일 2~5시

#### 대회 혹은 연례 활동

아마추어 대회 출전 등



### 먼저 자신의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원구에 거주하며 개인택시를 모는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60대 후반의 박남균입니다.

### 활동 중이신 클럽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어려우실 텐데 현재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불암클럽 다조 배드민턴 동호회는 2002년 11월 창단했습니다. 저희는 택시 기사들이 모인 동호회로 불암산 배드민턴 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약 30여 명으로 격일로 2시에서 5시 사이에 운동을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극심할 때는 주로 야외 활동을 했어요. 노천 배드민턴장에서 활동했는데 최근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동호회에 언제 가입하셨나요? 더불어 배드민턴 동호회 중에서 불암클럽을 택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동호회는 중계동에 위치한 체육관에서 삼삼오오 모여 소소하게 운동을 즐기던 사람들의 수가 늘면서 현재의 클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운동뿐 아니라 서로의 경조사도 챙기며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동호회 총무가 개설한 단체 카톡방을 활용해 서로 소통하는데요. 회원 가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두 달 정도의 숙려 기간을 가진 후 가입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숙려 기간 동안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활체육으로서 배드민턴의 매력을 궁금해 합니다.

운동으로써 생활체육으로써 배드민턴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2의 직업인 개인택시를 몰면서 배드민턴을 배웠습니다. 건강을 위해 공원이나 동네 놀이터에서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했어요. 재미와 실력이 붙다보니 동호회에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가까운 지인에게 소개받아 본격적인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람마다 다 사연이 다르겠지만 배드민턴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 쉽다는 겁니다. 배드민턴을 치고 땀을 흘린 후 샤워를 하면서 뿌듯함과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이가 있어서인지 친구들은 이렇게 격렬하게 땀을 내는 운동을 안 한다고 해요.

누구나 쉽게 배우고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큰 소리로 대화하면서 운동을 하니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것 같아요. 함께 하는 사람과의 허물없는 관계도 좋고요. 이 때문에 가족들도 종종 함께 해요. 저도 손자와 함께 배드민턴을 치면서 소통하기도 해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일이나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큰 즐거움은 봄과 가을에 열리는 대회에 참가한 것인데요. 타 클럽과 함께 어울려서 게임하는 것이 매우 즐거웠어요. 운동을 통해 잘 알지 못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재미있고, 동호회 회원들 간의 단합된 모습에서 보이는 에너지도 좋고요. 삶의 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다른 동호회와 달리 불암클럽만이 가진 강점 혹은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더불어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회원 간의 원만한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내다 보면 의견이 맞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 가끔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저는 함께 운동하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회원들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신입 회원 관리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회원들과 상의해 조정하며 단체가 커지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차게 동호회를 꾸려가는 것, 우리 동호회의 지향점입니다.

### 앞으로의 동호회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할 때 효과가 높아요. 앞으로도 꾸준히 배드민턴을 칠 계획인데요, 즐겁게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즐거우면 내일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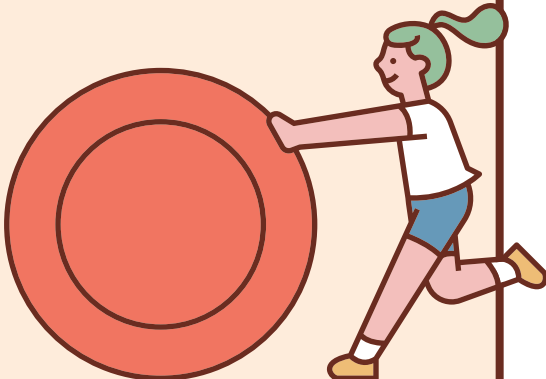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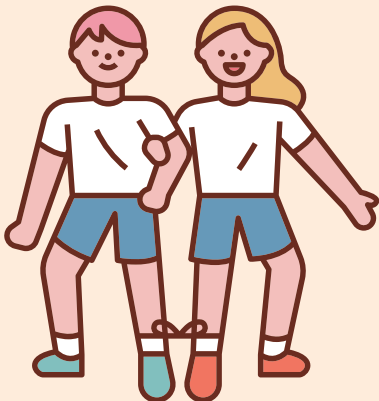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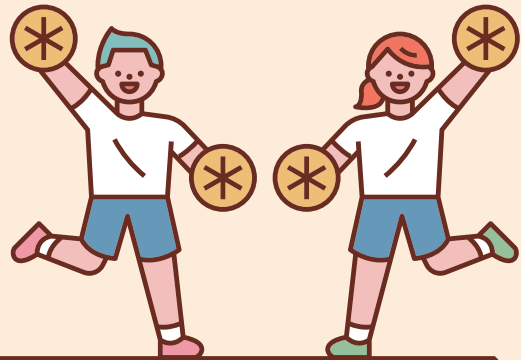
배드민턴은 4명이 하면 좋은 운동입니다. 서로 비슷한 수준의 회원들이 어울려 즐겁게 운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고요.

노원구에 위치한 불암클럽 다조 배드민턴 동호회, 오셔서 직접 체험하고 같이 운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방문하세요. **SPORTS**

## 초등 저학년, 체육 교육 강화해야

글. 김택천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장

생색내기 정책이 아닌, 학생의 입장에서 마련된 체육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교체육에 대한 교육 공급자의 인식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체육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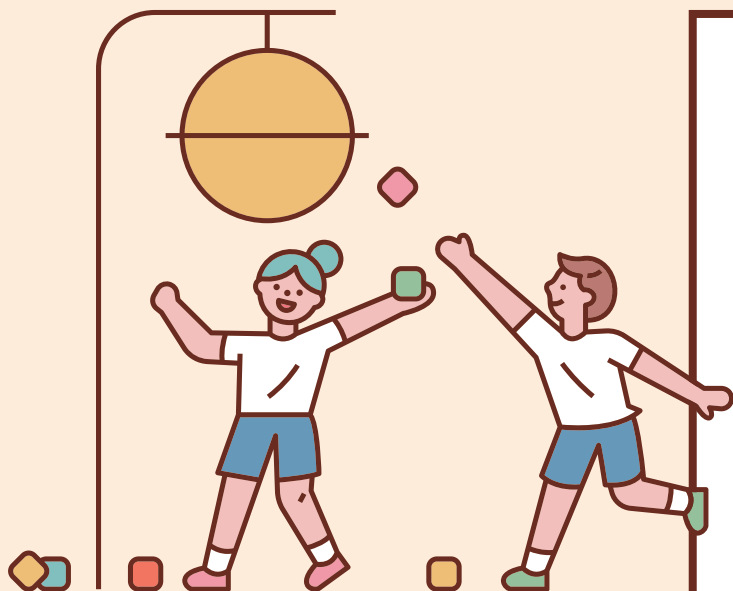


### 학생의 미래 행복한 삶 추구를 위한 첫 번째 조건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 소위 교육 공급자들은 학교체육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선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 필요한 정책은 정작 생색내기 수준에 그친다. 학생의 입장이 아닌 교육 공급자들의 인식에 의해 체육 정책이 잘못 재단돼 엉뚱한 학교체육을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학교체육이 왜 중요한지 이해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학교체육에 대한 교육 공급자의 인식과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 우선적으로 초등체육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초등학교 1, 2학년 체육은 음악, 미술 통합교육과정인 '즐거움 생활'로 묶여 있다. 주 2회 이상 실외놀이 및 신체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체육이 '즐거움 생활'에 묶여 운영되는 과정에서 초등 교사들이 체육 수업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이란 교육 목표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비현실적인 통합교육과정 탓에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초등 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미래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꼭 누려야 할 첫 번째 조건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꼭 필요한 체육 활동을 통합교육과정이 사실상 막고 있는 것이다.

## 국민건강 차원에서의 초등 체육 중요성 인식 필요

2000년 이후 아동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5명 중 1명에 이른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발달 단계에 따라 활발한 신체활동이 필요한 시기다. 이 시기의 체육활동 부족이 결국 아동청소년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에 발생한 비만은 지방세포의 크기만 증가하는 성인 비만과 달리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특성까지 가지고 있어서 약 8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 아동청소년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총 1조3,638억 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아동청소년 비만 때문에 국가경쟁력 손실은 물론 막대한 사회적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1, 2학년 통합교육과정에서 체육을 독립 운영해 비만을 막아야 한다. 체계적인 체육 교육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건강 차원에서 초등 체육이 중요함에도 주지 교과에 치중된 교육환경 탓에 체육 전문성이 결여된 초등 교사들의 체육 기피 현상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결국 우선적으로 체육 전문성을 갖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확대 배치해 전문적인 체육 수업을 제공하는 한편으로 장기적으로 교육대학에서는 초등 체육교사를 배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체육 교육은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육 전문지도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체육 전문가가 제대로 양성되지 않았다고 체육 교육을 독립시키는 것을 미룬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SPORTS1**





#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체육인을 양성하다

## 대구상원고등학교

글. 편집실

2014년부터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대구상원고등학교, 1923년 개교 이후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능동적인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을 통해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체육인을 양성하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즐기도록 지원하고 있는 대구상원고등학교를 들여다봤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본인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구상원고등학교에서 2년째 체육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정영록입니다. 저는 2002년 임용 후 대구 평리중(9년), 대구 일중(5년), 복현중(5년)을 거쳐 2021년 대구상원고등학교로 발령받아 현재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구상원고등학교가 체육교육 특성화 과정을 진행한 시기가 언제인지, 그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말씀해주세요.**

우리 대구상원고등학교는 2014년부터 교육부 지정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로 선정되어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대구시교육청 자체 예산을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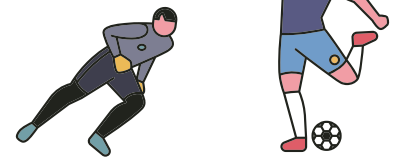




학교운영위원회 및 체육교육과정 운영협의회를 통해 학생선수 (야구, 럭비)로만 구성된 학급 구성형으로 3개 학년 총 3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문교과 수업과 다양한 특강(체육 진로 관련 특강, 심리 특강, 상원고 관련 역사특강, 체대입시 실기특강 등) 및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스포츠(볼링, 실내 서핑, 사격, 스키 등)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체육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대구상원고등학교의 교기는 야구부와 럭비부로 단체 운동 종목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학생 선수 수가 65명 이상으로 운동선수만으로 학급을 구성해 학생 수준에 맞춘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합니다. 학생 선수 기초학력 향상을 돕기 위해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학급 구성형 인성 교육과 다양한 진로활동을 통해 학생 선수들의 실력 향상은 물론, 인성도 겸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 학년별 학교체육 특성화 교육과정과 학생 수, 지도하는 교사의 수, 교과과정 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1학년은 1학급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체육수업 외 스포츠 개론(3)과 스포츠 경기체력/체육전공 실기기초(택4) 수업이 이뤄집니다. 2학년은 1학급 26명이구요. 운동과 건강수업 외 스포츠경기분석(2)과 단체 운동/체육전공실기기초(택6) 수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은 1학급 15명인데, 운동과 건강 외 체육진로탐구(3), 체육전공실기심화/체육전공실기응용(6)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사는 총 5명으로 3명의 교사가 각 학급담임을 겸하고 있으며, 5명의 교사 모두가 체육특성화학급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체육중점 수업 외에도 소개하고 싶은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교육과정 외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해 볼링체험, 실내 서핑 체험 및 스키/스노보드 체험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



을 경험하게 합니다. 학생 선수뿐 아니라 일반학생 중 체육계열 진로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진로 특강도 실시했고요. 더불어, 대구시 전체 희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육대학 실기 특강을 실시하며 대구시 체육거점학교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였습니다.

###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로 거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짐작됩니다.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더불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체육중점반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에 도움이 되었고, 분리 내신을 통해 학업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선수들이 증가해 대학 입시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연세대학교에 3명이 입학하기도 했어요. 작년 5월에 실시한 역사특강인 '역사 강사 최태성과 함께한 대

구상고(예전 교명) 야구부 6·25 학도병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바라보는 관심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애교심을 함양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 트레이너의 코칭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체력을 향상시킨 것은 물론, 진로 및 심리 특강을 통해 학생 선수들의 심리적인 안정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 학교 입장에서 생각하는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체육교사가 체육중점반 담임을 맡음으로써 학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해 진로에 대한 고민과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고요. 교육과정 내 전문교과 수업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체계적인 체력증진에도 도움이 되었으며, 체대 입시 실기 특강을 통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며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중점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매우 클 텐데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혹은 학생을 지도하면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다년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으로 전체 교직원의 특성화학교 운영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높고 상호 협력하는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교사 모두 학생 선수의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체육특기자 전형 관련 진학 상담 및 진로교육 통해 학생 선수 진로 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상황이나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다양한 스포츠 체험(볼링, 실내 서핑, 스키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의 해맑은 모습이 기억이 남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린 학기 초에 야구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태성 강사의 역사특강인데요, 6·25전쟁 당시, 대구상고 야구부 선배님들이 학도병으로 참전한 이야기를 듣고 소감을 발표하며 전사한 선배님들을 위해 진심으로 묵념을 하던 모습이 아직까지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체계적인 전문체육교육을 통해 스포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공부하는 학생 선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으로 기초학력을 향상하는 것, 체육진로 탐색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체육 관련 계열 진학 및 실력과 인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즐기며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 주는 것 등 목표가 여러 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대구상원고등학교는 앞으로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을 위해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전문교과와 기초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좀 더 알차게 설계하고 점차 학급 구성형에서 학급구성+과목선택형으로 확대·운영해 체육진로진학을 희망하는 일반학생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 교육과정 개설, 체육실기 특강 등을 운영해 대구지역 체육진로진학 거점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많은 학생과 기회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SPORTS1**

**대구상원고등학교 교육활동 프로그램**

학년	학기	교육과정 교과목	비고
1학년	1,2	스포츠개론 스포츠경기체력/체육전공실기기초	체육중점반
2학년	1,2	스포츠경기분석 단체운동/체육전공실기기초	체육중점반
3학년	1,2	체육진로탐구 체육전공실기심화/체육전공실기응용	체육중점반
3학년	1	체육진로탐구	일반학급
구분		활동 내용	
교육과정 내 프로그램		역사/진로/심리 특강, 스포츠인권교육, 심판강습회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한 체육활동(볼링, 실내 서핑 등)	
교육과정 외 프로그램		체대입시 실기 특강, 하계 스포츠 체험, 동계 스포츠 스키 체험	



## 건강관리의 패러다임, ‘절제’가 아닌 ‘즐거움과 편리함’ 헬시 플레저

글. 편집실 참고 자료. <트렌드코리아 2022>(김난도 외 지음 | 미래의창 펴냄)

건강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관심 분야다.  
특히 코로나19는 건강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최근 유행하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도 그중 하나다.  
Healthy(건강한)와 Pleasure(기쁨)가 결합한 신조어로,  
건강과 즐거움을 모두 챙기는 건강관리법을 말한다.

### 건강에 즐거움을 더하다

운동과 식단 조절로 신체적 건강만을 추구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효율적으로 즐기는 건강관리법을 고민하는 시대다. <트렌드 코리아 2022>는 2022년을 관통할 주요 트렌드 키워 중 하나로 ‘헬시플레저’를 꼽았다. 과거와 달리 건강과 행복을 모두 챙기는 건강관리법이 유행할 거라는 분석에서다.

실제로 MZ 세대를 주축으로 과거와는 달리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행복하게 즐기는 운동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건강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거나 무작정 절제하지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 저칼로리의 맛있는 식품을 찾아 먹고, 효율적으로 멘탈을 관리하며 즐거운 방식으로 운동한다. 건강관리의 개념이 힘들고 엄격했던 것에서 쉽고 재미있으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생활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는 헬스 플레저 실천 방법을 소개한다.

## #식단관리

맛있게 먹고,  
재미있게 건강 챙기기

헬시플레저를 실천하는 이들의 식단 관리는 건강과 맛을 동시에 충족하는 음식을 먹는 게 핵심이다. 대부분의 식단 관리의 목표가 체중 조절인 만큼, 칼로리·염분을 제한하면서 양질의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을 고르게 섭취해야 한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맛이다. 무조건 식단을 제한하거나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다면 지속력이 떨어져 식단관리를 쉽게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홈쿡’이다. 최근 유행하는 다이어트 식재료인 곤약, 두부 등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 등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밖에도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대체 식재료를 찾아 자신만의 레시피로 꾸린다면 식단 관리의 즐거움을 얼마든지 만끽할 수 있다.

## #멘탈관리

꿀 같은 휴식 활용,  
오롯한 혼자만의 시간 즐기기

‘양질의 휴식’은 건강한 삶의 원동력이 된다. 때문에 헬시 플레저는 휴식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최근 유행하는 방법은 ‘멍 때리기’와 ‘명상’이다. 멍 때리기와 명상은 주의를 한곳으로 모아 여러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몸과 마음에 휴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 10분가량 멍 때리거나 명상하는 습관을 만들면 스트레스와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수면관리도 중요하다. 잠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신에게 꼭 맞는 베개를 찾아 헤매는 ‘베개 유목민’이 생기기도 했으면, ASMR, 뇌파 소리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 수면관리를 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수면 상태가 불량하다면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챙겨먹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운동관리

의무감은 No,  
재밌고 즐겁게 운동 즐기기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은 꾸준함이 필수인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헬시 플레저를 실천하는 이들은 의무감으로 하는 운동 아닌 취미의 영역에서 즐기는 운동을 통해 재미와 건강을 챙긴다. 대표적인 예가 운동 요소를 결합한 게임 즐기기다. 권투와 사이클 같은 종목과 결합한 게임들은 운동 하러 나가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뿐 아니라, 게임을 즐기며 유산소·균형·근육 운동을 두루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운동 상황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하면 조금씩 더 건강해지는 내 몸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부여는 물론, 성과에 대한 보람과 재미까지 느낄 수 있다. **SPORTS1**



# 대한체육회 각본·연출로 '꿀잼'과 '실속'까지 챙겼습니다!

대한체육회TV 기획영상



추억이 새록새록, 감동이 방울방울

**올림픽 타임머신에 탑승하셨습니다!**

**스포츠 스타(올림픽 리와인드)**

스포츠가 주는 감동은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강렬합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한계와 싸우며 자신을 단련시킨 선수들의 노력이 있고, 선수들을 응원하는 팬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우리들 마음속 영웅, 국가대표 선수들과 '올림픽, 그때 그 감동'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2008 베이징올림픽 야구 금메달리스트 '봉준근이 말하는 9전 전승의 신화', 2012 런던올림픽 축구 동메달 신화의 주역 '윤석영이 말하는 올림픽 비하인드' 등 대한체육회가 준비한 '추억의 타임머신'에 탑승해볼까요?



바로보기

QR 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글. 편집실

주요 방송매체에선 접하기 힘든 스포츠 종목과 선수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세요?

대한체육회TV(tv.sports.or.kr)에 접속해 보세요. 꿀잼은 기본! 실속까지 챙긴 기획영상이 가득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올림픽 스타와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는 과거 여행 '올림픽 리와인드'와 국가대표에게 종목 기술을 배우보는 '슬기로운 체육생활'을 소개합니다.



국가대표 선수에게 배우는, 국대급 코칭

## 국가대표의 국대급 코칭 받아보실래요? 배워봅시다(슬기로운 체육생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요?

대한체육회TV에서는 이런 꿈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됩니다.

주요 방송매체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국가대표 선수들의 비밀스러운 모습은 덤.

스케이드보드 국가대표 조현주·임현성과 함께하는 '최연소 월클 선생'께 배워보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박상영'이 알려주는 펜싱의 모든 것,

테니스 국가대표 '남지성·송민규'에게 배우보는 테니스의 기초 등

국대급 코칭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SPORTS**



바로보기

QR 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각양각색, 구기종목 공의 크기를 알아볼까요?

글. 편집실

축구, 야구, 농구, 럭비... 세계인이 열광하는 이들 스포츠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공을 가지고 승부를 겨룬다는 것. 이런 스포츠를 구기종목이라고 부른다.  
구기종목은 공의 종류와 공을 다루는 도구에 따라 여러 가지 종목으로 구분된다.  
또한, 공은 그 종목의 특징에 따라 공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진다.

## 구기종목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구기종목은 크게 네트형, 베이스볼형, 골형, 타깃형으로 구분된다. 오는 2024 파리올림픽 구기종목은 골프·농구·럭비·레슬링·배구·배드민턴·축구·탁구·테니스·핸드볼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종목이었던 야구와 소프트볼은 제외됐다.



### 네트(Net)형

네트를 사이에 두고 상대 진영으로 공을 넘기는 경기다. 배구와 족구는 각각 손과 발로 공을 넘긴다. 탁구·배드민턴·테니스는 라켓이라는 도구를 이용한다.



### 베트(Bat)형

네트를 사이에 두고 상대 진영으로 공을 넘기는 경기다. 배구와 족구는 각각 손과 발로 공을 넘긴다. 탁구·배드민턴·테니스는 라켓이라는 도구를 이용한다.



### 골(Goal)형

공을 때리거나 골대에 공을 넣는 경기다. 축구, 공구, 핸드볼, 수구 등은 손과 발을 사용해 공을 골대에 넣지만, 하키와 아이스하키는 스틱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골대에 공을 넣는다.



### 타깃(Target)형

공이나 특정한 도구를 이용해 정해진 타깃을 맞추거나 가까이 가게 하는 경기다. 볼링은 손으로 공을 굴려 정해진 핀을 쓰러뜨리고, 당구는 큐라는 도구를 이용해 다른 공을 맞히거나 포켓에 넣는다.





## 구기종목 공, 누가 더 클까?

구기종목에서 사용되는 공은 각 종목의 특성에 따라 그 규격이 변해왔다. 지금은 종목별로 모두 다른 크기의 공을 사용한다. 크기가 비슷할 것 같은 농구, 배구, 축구도 모두 조금씩 차이가 있고, 룰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배구와 비치발리볼 조차 공의 크기가 완전히 같지는 않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열리는 구기종목에서 가장 큰 공을 쓰는 종목은 농구다. 농구는 통상적으로 직경 24cm 정도의 공을 사용한다. 그 뒤를 축구와 배구가 따르는데, 축구공은 직경 22cm, 배구공은 20.7cm가 규격 크기다. 그렇다면 가장 작은 공은? 직경 4cm의 탁구공이다. 입으로 불어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 무게(2.7g) 역시 '최경량'이다. 공의 속도에서는 최고를 다투는 골프공의 크기는 선수별로 쓰는 브랜드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직경 1.68인치(약 4.27cm) 이상의 공을 쓰도록 규정돼 있다. **SPORTS1**

### TIP

#### 누가 누가 더 빠를까?

구기종목 중 가장 빠른 종목은 무엇일까? 배드민턴과 골프가 1, 2위를 다툰다. 현재 기네스북엔 미국의 골프선수 라이언 윈더가 2013년 기록한 시속 349.3km가 최고 기록으로 올라있다. 배드민턴은 중국의 푸하이핑이 2005년 수드리만컵에서 기록한 스매쉬 스피드인 시속 331.4km가 최고다. 두 종목의 모두 KTX(최고 시속 305km)보다 빠르다. 다음은 테니스다. 경기마다 시속 200~250km의 '광속' 서브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 구기종목 공의 크기



탁구  
4cm



골프  
4.27cm(이상)



테니스  
6.545cm



하키  
7.14cm



핸드볼  
18.5cm



배구  
20.7cm



축구  
2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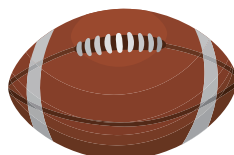


농구  
24cm

## 구 형태가 아닌 공



배드민턴(셔틀콕)  
2.54~2.84cm



럭비(타원형 공)  
원주의 길이가 짧은 쪽 직경 28cm, 긴 쪽 58cm



글. 편집실

지난 4월 18일, 지난했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해제됐다.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3년 만의 바깥활동에 대한 기대로 벌써부터 몸이 기분 좋게 간질간질 해진다. 운동도 하고 경치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좋은 서울근교 5곳을 소개한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인만큼 개인 방역에 신경 쓰며 기분 좋은 바람을 만끽해 보자.

# 바람 타고 자전거 타고 라이딩하기 좋은 서울 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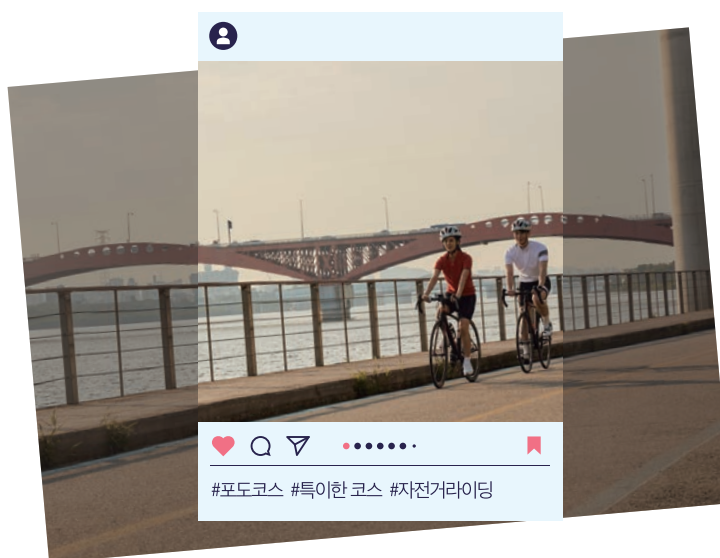
## 누구나 다아는-한강한바퀴 코스

‘한강 한 바퀴 코스’는 강변을 따라 달리는 코스이기 때문에 경치가 좋고 길도 잘 다듬어져 있다. 안양천 합수부를 출발해서 한강 남단 자전거도로를 타고 암사대교 또는 팔당대교까지 갔다가 다시 북단 자전거 도로를 타고 독섬인증센터와 행주대교를 거쳐 출발지인 안양천 합수부로 되돌아오는 코스다. 코스는 대략 110km이며, 약 5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니 자신의 체력과 실력에 맞게 계획적으로 라이딩하는 게 좋다.

운행거리가 마치 하트 모양 같아 붙여진 ‘하트 코스’는 서울 한강 자전거길을 출발해 탄천과 양재천, 학의천, 안양천을 돌아 다시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총거리는 66km 정도. 난이도는 중 정도로 초보자가 아니라면 도전할 만하다. 하트 코스 중 양재천~안양천 구간은 자전거길이 아닌 일반 국도임으로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자. 하트 코스는 봄에는 벚꽃을 가을에는 핑크물리과 노랑 코스모스 등 다양한 가을꽃을 감상할 수 있다.



#한강라이딩 #한강 #팔당대교까지 #달려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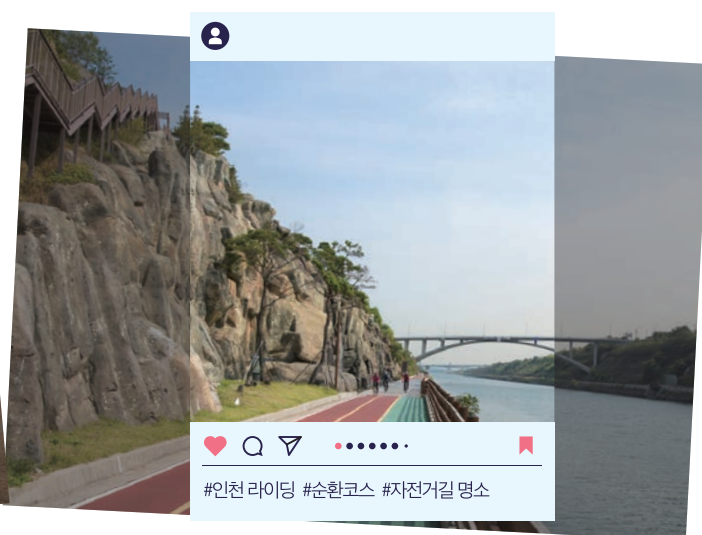


### 이름부터 특이한-가오리/장화/포도 코스

독서한강공원에서 출발해 중랑천 자전거길을 통과해 신내천과 왕숙천, 경숙천 자전거길을 거쳐 다시 한강자전거길로 돌아오는 가오리 코스. 운행거리 생김새가 가오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 서울 동부와 구리시를 거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도심지에서 시작해 점점 교외로 벗어나는 코스다. 주행길이 거의 평지여서 라이딩하기엔 더없이 좋다.

장화 코스에도 도전해 보자. 운행거리가 장화같이 생긴, 왕숙천에서 광릉수목원, 축석고개,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코스다. 장화코스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일반도로가 섞여 있는 복합코스라서 난이도는 중에 해당된다. 코스 중간에는 광릉수목원, 봉선사, 500년 넘은 느티나무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하다. 특히, 광릉수목원길로 들어서면 수목원을 둘러싼 웅장한 거목들이 반긴다. 대략 80km에 달하는 코스는 대체로 내리막길이어서 힘들이지 않고 나무들 사이에서 누빌 수 있다.

포도 코스는 거꾸로 매달린 포도송이 모양의 코스로, 북한산 둘레 코스라고도 불린다. 총 거리는 약 71km, 중간에 힘든 오르막길 구간이 있어서 중급자 이상에게 추천하는 코스다. 포도코스는 망원한강공원에서 출발해 성산대교, 불광천, 송추, 회룡역, 의정부시청, 중랑천을 거쳐 다시 망원한강공원에서 도착한다. 코스 중간에 있는 옛경춘철교길은 인생사진 남기기 좋은 포토존으로 유명하다.



### 다양한 볼거리가 넘치는-인천동부지역 순환코스

인천동부지역 순환코스는 안합에서 출발해 아라자전거길, 굴포천, 부평구, 간석동, 은행동, 목감천, 안양천을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는 코스다. 총 거리는 약 60km, 시간은 약 3시간 30분 소요된다. 전체적으로 평지이고 자전거길 위주의 코스다. 한강자전거도로, 아라자전거길, 목감천자전거길, 안양천자전거길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자전거길 명소들이 준비해 있는 코스로도 유명하다. 순환코스 중, 경인아라자전거길 코스는 국내 자전거 라이딩 코스 중에서도 매력만점 코스다. 경인아라벳길을 따라 서해아라갯문인증센터까지 이어진 이 자전거길은 경사 구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라이딩 초보도 비교적 쉽게 달릴 수 있는 구간이다. 이 길은 서해에 가깝기 때문에 바람이 다른 코스보다 좀 센 편이다. 코스 중간에 아라폭포, 목상교가 있어서 잠시 머물며 경치를 즐기기에 좋다. **SPORTS1**





2022학년도 4월 SPORTS1 모의고사 문제지

# 도전! 나도 Sporter

## 스포츠와 일반상식 영역

<SPORTS1> 4월호는 잘 읽었나요? 우리나라 체육계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KSOC 모의고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독자분의 이해를 돕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정답은 <SPORTS1> 4월호에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들의 금지약물 사용을 관리, 감시,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영어 약자 표기는?

① KADA

② WADA

③ RUSADA

④ ITA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년 4월 마지막 주간에 실시되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장 및 학교 등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실시한다. 올해 60회 째를 맞이한 이 행사의 명칭은?

① 체육대회

② 프로스포츠

③ 스포츠주간

④ 생활체육대회

## 2022학년도 4월 SPORTS1 모의고사 문제지

3 최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지칭하는 영어 약어 표기는?

- ① 김예리    ② 한예리  
③ 임예리    ④ 강예리

4. 최고 순간 속도의 제왕이라 불리는 셔틀콧의 무게는 대략 4.75~5.5g 정도이다. 라켓으로 타격하는 순간 최고 300km 이상의 속도를 내며 비행기 이륙 속도와 맞먹을 정도라는데, 셔틀콧이 사용되는 종목의 이름은?

- ① 정구                                  ② 테니스  
③ 스쿼시                              ④ 배드민턴

## 문제 해결

**TIP**

## 1번 힌트

## World Anti-Doping Agency

어려울 것 없다.

힌트에 적힌 영어 앞 글자만 따서 모으면 된다.

## 4번 히트

## ‘통통 튀는 공’ 말고 ‘깃털’

세 종목은 고무공을 주고받고

나머지 한 종목만 가벼운 셔틀콧을 주고받는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정답 제출하기

QR코드 스캔 후 퀴즈 정답을 제출해주세요.

퀴즈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5월 중으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2022년 4월호 정답 제출 마감일: 2022년 5월 12일)

## 3월호 정답자

정\*재 (4120), 박\*권 (4272), 김\*학 (5425), 장\*익 (3944), 김\*비 (5246)  
김\*규 (8816), 박\*승 (1412), 류\*주 (4034), 장\*수 (7589), 전\*조 (3963)



**‘스포츠주간’ 이벤트에 도전하세요.**

이번호에서는 KSOC 모의고사와 별도로 ‘스포츠주간’ 이벤트(22-23페이지 참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 SPORTS1 NEWS

##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훈련지원 제도개선 협력체계 구축



대한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국가대표 스포츠과학 훈련 지원 제도 개선에 힘쓴다. 대한체육회는 4월 12일, 올림픽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와 국가대표 훈련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체육단체 협력체계 구축 회의를 진행했다. 양 기관은 그동안의 국가대표 스포츠과학 지원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비효율적으로 이뤄졌던 훈련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나아가 스포츠과학 분야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것에 합의하고 향후 기관 간 협업 및 공조를 약속했다.

현재 국가대표 지원을 위한 식단영양, 의학지원, 부상예방 및 재활, 기술훈련, 전담매니저, 생활관리, 학생선수 학습권 지원 등 대부분의 기능은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체력측정 및 스포츠역학 등 일부 기능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의 스포츠정책과학원으로 이원화 돼 있어 선수데이터 관리 및 스포츠과학 통합지원에 한계가 있고, 선수단의 민원 및 업무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양 기관은 향후 국가대표 스포츠과학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국가대표의 경기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2 NFT 히어로즈 에디션 출시



팀코리아 NFT 후속작으로 2022 팀코리아 히어로즈(2022 Heroes of Team Korea) 에디션과 디지털 포토카드 에디션 NFT 상품이 출시되었다. 이번에 발행한 팀코리아 NFT는 3월 31일부터 팀코리아 NFT 홈페이지에서 판매했는데, 판매 방식은 구매 희망자가 가격을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낙찰되면 구매가 완료되는 옥션 형식으로 진행된다.

후속작으로 발행되는 이번 히어로즈 에디션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히어로즈 에디션은 팬들이 선수들에게 수여하는 메달형 NFT로 선수별로 2개만 발행되며, 두 개의 메달 중 하나는 선수가, 나머지 하나는 선수를 응원하는 팬 1명만이 소유하게 되어 소장 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포토카드 에디션은 베이징동계올림픽 기간 중 화제가 되었던 대한민국 선수단 프로필 사진을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디지털 포토카드 NFT도 종류별로 각 1개씩만 발행된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팀코리아 NFT에 이어 올 9월에 개막하는 2022 항저우하계아시안게임 팀코리아 NFT를 준비하여 스포츠 자산의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2022 APRIL

## 대한체육회

### 파라리서치와 국가대표 선수단에 의약품 전달



대한체육회는 4월 12일, 인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파라리서치와 국가대표 선수단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약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파라리서치는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비롯해 국내외 대회 등에서 선전을 기원하며 의약품 ‘곤쥘란’, ‘플라센텍스주’, ‘리안 점안액’, ‘콘액트’ 등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

전달식에서 파라리서치 김신규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효과적인 몸관리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파라리서치 제품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인탁 선수촌장은 이에 대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선수들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과 부상 예방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기증해주신 여러 의약품들은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 김진성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품 기증식 개최

대한체육회가 지난 29일 12시 인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도예가 무이 김진성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품 달 향아리 기증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유인탁 선수촌장 등 대한체육회 및 대운산미술관 관계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환영 인사, 기증식, 사진촬영 순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기증 받은 달 향아리 작품인 ‘사람들과 밤하늘에 내리는 눈’은 우주를 주제로 하여 제작되었으며, 국가대표 선수들이 더 넓은 세계를 향한 꿈을 키우고 정진해나갈 것을 당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진성 작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달 향아리를 통해 세계무대를 향한 더 큰 포부를 갖길 바라며, 아울러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기회

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유인탁 선수촌장은 “소중한 작품을 국가대표선수촌에 기증해 주시어 감사하다”며 “기증품의 기운을 받아 앞으로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 서울디자인재단과 업무협약, 아시안게임 선수단 NFT 개발



대한체육회가 3월 29일, 서울디자인재단과 팀코리아 NFT 한정판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포츠와 디자인 산업 간 융합과 성장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스포츠 자산(IP)과 디자인 가치를 통합하여 오는 9월 개최되는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NFT의 한정판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는 항저우아시안게임 선수단의 이미지와 판매 채널을 제공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은 전문 디자이너를 활용하여 팀코리아 NFT의 디자인적 가치와 작품성을 제고한다.

또한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새롭게 구축 예정인 'DDP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디자인 작품'으로서 팀코리아 NFT를 만나볼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전시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협업을 통해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에서 더 많은 선수들과 종목들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스포츠 디지털화에 맞추어 더욱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어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 SPORTS1 NEWS

## 시도체육회

전국 시도체육회,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연석회의 참석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는 4월 14일,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와 시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단체·관계기관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국내 선수모집이 예측 가능하고 지역과 종목의 스폰서십을 위해 채택된 시도 및 종목별 쿼터제(선수배정)와 대회 참여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각종 편의지원책이 논의됐다.

국제경기대회지원법령과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의 가이드에 따라 진행되는 전국 최초 생활체육 국제종합대회의 특성상 대회 기간이 길고(9일) 평일이 6일이 된다는 점은 국내 참가선수들의 큰 부담이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각 사업장별 공개(공적인 휴가)관련 복무규정과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대회 참여자에 대한 공개처리를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지역별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주최기관(IMGA)의 규약에 따라 책정된 개인별 참가등록비에 대한 부담과 현지 체류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 행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회 참여 진입장벽을 허무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대회 마스터스대회 특성상 참가자의 연령대가 30대 이상의 장년층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별 참가신청과 더불어 단체 일괄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회등록시스템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체육회장들  
강원·경북 산불 피해 복구 위해 정성을 모으다

전국 시도체육회장단협의회가 강원·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국 시도체육회장단협의회는 4월 4일, 강원도·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각 500만원씩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와 경북 지역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 구입과 피해 지역 재건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덕호 전국 시도체육회장단협의회회장(충청남도체육회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2022년 '서울트레킹' 운영

서울특별시체육회는 4월부터 9월까지 '2022년 서울트레킹'을 운영한다. '2022년 서울트레킹'은 총 4회 운영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4월 비대면 방식 운영으로 시작해 5월~9월은 대면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은 1차(비대면) 4월 23일부터 5월 1일, 2차(대면) 5월 28일, 3차(대면) 7월 16일, 4차(대면) 9월 24일 총 4회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1차(비대면) 참가자는 걷기 기록측정 앱을 실행 후 서울시 내 자유로운 코스를 선택해 5km 이상 완주하고 해당 기록 캡처(날짜, 거리 표기) 및 참여 인증사진을 서울특별시체육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인증하면 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에 호응이 좋았던 '플로깅 캠페인'(Plogging, 스웨덴어 'plocka upp'와 영어 '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참가자들이 개인별 비닐봉투 및 비닐장갑 등을 준비해 '플로깅 캠페인' 참여인증을 하면 별도의 상품이 지급된다.

또한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올해 우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서울 외 지역의 명산을 탐험하는 트레킹원정대를 11월 중 운영한다. 참가자 선발은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참여도, 건강상태, 홍보보실적, 자원봉사 등 항목별 평가에 따른 고득점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앞으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2 APRIL

## 시도체육회

###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 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

#### 전국 최다 선정에 딸 관리 감독에 최선



전라남도가 '2022 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신나는 주말학교)' 선정에서 전국 최상위를 차지하며, 청소년 1인 1종목의 체육 생활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체육회는 지난 3월 16일, 대한체육회가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학생 대상 주말체육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 선정 결과 전라남도는 424개소(학교안 269개소, 학교밖 155개)가 최종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는 당초 올해 배정 계획이었던 388개소(학교안 234개, 학교밖 154개)를 28개나 초과한 것으로, 전라남도는 지난해 전국 3위에서 올해는 전국 1위 선정의 기쁨까지 누리게 됐다. 올해 배정 결과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2위인 경상남도가 301개, 3위인 경기도-전라북도가 292개, 5위인 경상북도가 268개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체육회는 앞으로 전라남도교육청 및 도내 시군체육회와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학교 선정 협의 및 안내, 강사교육 운영, 사업비 교부, 실적 등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강원도체육회

#### 강원도민체육대회, 비인기종목 개최 변경 적용

강원도체육회는 22일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대공연장에서 제5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겸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도대표 선발대회 개최와 관련한 시군 및 회원종목단체 관계자 회의를 열었다. 제57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6월 10일부터 개최 예정이며, 총 41개 종목에 1만여 명의 시군대표 선수들이 참가해 시군대항전으로 진행된다.

특히 주 개최지인 고성군에서는 육상, 농구, 배구 등 28종목을 개최한다. 그리고 수영, 산악, 카누 등 전용 경기장이 있는 춘천, 강릉, 속초, 횡성, 양구, 양양에서 13종목이 개최된다. 이번 대회부터는 그동안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참가 자격이 모호했으나 학교밖 청소년의 범위를 인정해 클럽에 속해 있는 동일연령대 청소년의 대회 참가 기회를 부여한다. 또 그동안 경제성을 전제로 한 대회의 효율성이나, 비인기종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냐에 대한 분분한 의견을 정리했다.

참가 시군이 부별 4개시군 이하일 경우 당해 종목에 대해 미개최하던 것을 비인기종목 활성화 차원에서 참가 시군 수에 상관없이 개최하기로 변경했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 회원단체 직무연수 실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3월 18일, 부산시체육회관에서 구·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실무자 등 13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단체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부산광역시체육회 법인 설립 이후 처음 열린 회원단체 직무연수 교육이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체육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회원단체 간 정보교류와 친선 도모를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행정 능력 함양을 위한 기초 지식과 필수지식 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개별 업무교육과 집체 인권교육으로 두 차례 나눠 실시했다. 1차 교육은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회계 교육과 회원단체운영 실무교육, 전자시스템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10회에 걸쳐 진행했다. 2차 집체교육은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주제로 3월 18일 열렸다.



# SPORTS1 NEWS

## 시도체육회

광주광역시체육회  
스포츠 유전자 지원사업 착수



광주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소가 전국 최초 '스포츠 유전자(DNA)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과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스포츠 유전자 분석은 의과대학에서, 그에 따른 현장 적용은 연구소에서 각각 맡는다.

스포츠과학연구소는 최근 전남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IRB)'에 따라 최종 사업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스포츠 유전자 검체 채취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스포츠 유전자 23개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기존 스포츠과학센터의 '유전적 표현형(체력측정 및 평가)' 데이터와 '유전자형(DNA)' 데이터의 융합을 통한 신인선수 발굴, 전문훈련 과학화, 컨디셔닝 지원을 통한 부상회복 지원 등의 과학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 회원종목단체

대한하키협회  
서울미술고에 동아리 활동 하키 장비 지원



대한하키협회는 서울미술고등학교에 하키 동아리 활동을 위한 장비를 지원했다. 이상현 대한하키협회장과 이금주 전무이사, 박신희 사무처장 등은 4월 12일 서울 관악구 서울미술고를 방문해 선수용 스틱 10자루와 하키공 12개, 다리 보호대 20개와 비선수용 스틱 20자루, 하키공 20개를 전달했다.

대한하키협회는 방학 기간 체육 교사에 대한 하키 연수 실시, 전문 강사 파견, 동아리 활동 참여 학생에게 체육 관련 업무 경험 제공 등 하키 저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모색 중이다.

대한씨름협회  
씨름 부흥을 위해 '전용씨름장 건립'

대한씨름협회가 씨름 부흥을 위해 전용경기장 건립에 나선다. 4월 11일, 대한씨름협회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추진할 역점사업 6개를 발표했다. 6개 역점사업은 씨름 전용·상설경기장 및 박물관 건립, 민속씨름 부활, 여자씨름 활성화, 씨름 국제화, 새로운 문화·예술콘텐츠 개발 강화, 꿈나무 육성 지원 사업 관련 '전국스포츠클럽' 정식종목 채택 등이다.

대한씨름협회는 먼저 씨름 전용·상설경기장 건립을 통해 씨름의 저변을 확대한다. 특히 경기장을 일반 시민들도 씨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친숙한 스포츠로 만들 계획이다. 또 민속씨름 부활을 위해 지속적인 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기업씨름단 창단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여자씨름 활성화를 위해 창단지원과 대회 및 경기력향상지원금 규모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씨름협회는 여자씨름을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 APRIL

## 회원종목단체

대한당구협회  
‘UN 기후변화협약’ 가입

대한당구연맹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스포츠 기후 행동 협정(Sports for Climate Action)에 가입했다. ‘스포츠 기후 행동 협정’은 스포츠 단체의 대회 운영에 있어 친환경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18년에 출범했다. ‘스포츠 기후 행동 협정’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연맹(FIFA), 유럽 축구연맹(UEFA) 등 국제스포츠기구와 미국프로농구(NBA), 미국풋볼리그(NFL) 등 프로스포츠리그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341개의 스포츠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한당구협회는 협약 조건 이행을 위해 내부 TF팀을 올해 초 개설했다. 연맹은 협약 가입과 함께 오는 2024년까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E.S.G 경영 패러다임 전환체제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국내 당구 스포츠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사항에 대한 보고서 매년 UN에 제출하게 된다. 또한 환경 전문가를 영입해 관련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사회적기업과 협력을 통한 친환경 제품 기념품 제작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당구연맹은 지난해부터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왔으며, 국내 종합대회에서 3NO(No paper, No plastic, No idle)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대회장 내 환경 개선 수칙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종이, 공회전을 금지하며 환경 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보였다.

대한럭비협회 - OK배정장학재단  
전국 고교 럭비부에 장학기금 전달

대한럭비협회는 3월 말, OK배정장학재단과 함께 ‘차세대 럭비 꿈나무 육성을 위한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장학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장학기금은 대한럭비협회가 주관하고 OK금융그룹이 후원하는 ‘제1회 OK금융그룹배 럭비 고교동창 노사이드 채리티(Charity·자선) 매치(이하 럭비 채리티 매치)’를 통해 마련됐다.

지난해 9월 개최된 럭비 채리티 매치는 대한럭비협회와 안산시럭비협회, 전남럭비협회 등 일반부와 대구 상원고, 성남고, 이리공업고 등 럭비부 출신 고교 동창로 나뉘어 특별 친선경기 형태로 진행됐다. 대회에 참가한 럭비인들은 상금 전액을 기부해 ‘럭비 꿈나무’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OK배정장학재단도 럭비인들의 뜻에 공감, 럭비 저변 확대 및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위해 동일한 금액을 함께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추가 기부금을 조성했다.

이렇게 마련된 장학기금은 대구상원고, 성남고, 이리공업고, 양정고, 배재고, 서울사대부고, 부천북고, 인천기계공업고, 천안오성고, 경산고, 제주NLCS, 백신고, 부산체고, 명석고, 전남고, 충북고, 창원공업고, 진도실고 등 럭비부를 운영 중인 18개 고등학교에 전액 전달됐다. 장학기금을 전달받은 고등학교는 차세대 럭비 유망주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기자재 및 훈련용품 구매 등 럭비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대한배구협회  
2022 FIVB 발리볼 챌린저컵 7월 한국개최

2022 FIVB 발리볼 챌린저컵 남자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배구협회는 4월 8일, 국제배구연맹(FIVB)과 협의를 통해 2022 FIVB 발리볼 챌린저컵 한국 개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2022 FIVB 발리볼 챌린저컵에는 개최국 한국과 ‘최상위 국가가 참가하는’ 발리볼네이션스리그에서 강등된 1팀, 2021년 유럽 골든리그 우승팀 터키, 2022년 유럽 골든리그 우승팀(미정), 아시아 상위 랭킹 1팀, 북중미 상위 랭킹 1팀, 아프리카 상위 랭킹 1팀, 남미 상위 랭킹 1팀 등 총 8개 팀이 참가한다.

임도현 감독이 이끄는 남자 배구대표팀은 2022 FIVB 발리볼챌린저컵에서 우승해 2023년 발리볼네이션스리그 출전권을 확보하고, 세계랭킹 포인트를 쌓아 2024 파리 올림픽과 2028 LA 올림픽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SPORTS1 NEWS

## 회원종목단체

### 대한요트협회

#### 대한요트협회장배 전국 요트대회 개최



대한요트협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요트협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한요트협회장배 전국요트대회가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충남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과 홍원항 일원에서 진행됐다. 개회식은 4월 8일 오전 11시 춘장대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되었으며, 개회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선 딩기(Dinghy) 종목(1인승2인승)을 비롯해 윈드서핑, 카이트보딩 종목이 치러졌다. 특히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발전으로 대회에 출전하게 될 선수들이 경기력과 실전 감각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대회로 치러졌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에는 정보강형중(이상 강릉시청) 선수와 권순호(강원도요트협회) 선수가 선발됐다.

### 대한핸드볼협회

#### ESG 추진단 출범

대한핸드볼협회가 4월 12일, 친환경과 사회적 가치, 투명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중 처음으로 ESG 추진단을 협회 내 공식 기구로 출범했다. 길병승 협회 부회장이 단장을 맡았고, 전국 16개 시도협회 전무이사 및 5개 전문위원회 수석이 참여하는 협의체 성격의 기구로 구성됐다.

ESG 추진단은 출범 후 첫 프로그램으로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대상 폭력방지 교육을 진행했다. 폭력 방지 교육은 핸드볼 아카데미 주관으로 3월

28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렸으며 전국 초·중·고·대·실업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등 2,5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금번 폭력방지 교육을 기점으로 협회 ESG 추진단에서는 4월말 전북 익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종별 선수권대회에서 16개 시도핸드볼협회 전무이사 및 5개 전문위원회 수석이 함께모여 ESG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 대한산악연맹

####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 성료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42회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2022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린 이번 대회는 '콤바인(리드+볼더링)'과 '스피드' 2개 종목으로 열렸으며, 대한산악연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진행됐다.

남자콤바인 부문은 천종원(서울, 노스페이스클라이밍팀) 선수가 리드 2위, 볼더링 1위로 우승을, 여자콤바인 부문은 서채현(서울, 노스페이스클라이밍팀) 선수가 리드와볼더링 각각 1위로 우승을 차지했다. 남녀일부부 스피드 부문에선 이승범(경남, 중부경남클라이밍) 선수와 노희주(부산, 신정고등학교) 선수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 오늘부터 갓살기 시작합니다

갓생은 GOD(신)+人生(인생)을 합친 신조어로 대단하고 좋은 것,  
훌륭한 것을 말할 때 접두어처럼 사용되는 갓을 인생에 붙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으로 갓살기 프로젝트를 실천해보세요!



#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보** **달려 봄**

시원한 바람, 흙과 나무, 자연의 향기를 느끼며 달려보세요  
더 건강하고 꾸준하게 지속가능한 힘 **스포츠7330**

**제60회 2022년 스포츠주간**  
**4/24(일) ~ 4/30(토)**



※ 이 제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